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COOPERATION BETWEEN PASTOR AND ELDERS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REPUBLIC OF KOREA

written by

YOUNG MOO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Young Shin Kim

Seyoon Kim

June 1, 2004

**COOPERATION BETWEEN PASTOR AND ELDERS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MOO LEE

JUNE 2004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이 영 무

2004년 6월

Abstract

Cooperation between Pastor and Elders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Republic
of Korea

Young Moo Lee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churches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conflicts and struggles between the pastors (especially the senior pastors) and the elders. While it is not so easy to accomplish the Great Commission, the Korean churches are wasting their energies to do with those conflicts and struggl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cooperative pastoral ministry model which enables the pastors and the elders to work together for the pastoral ministry of the local churches.

This paper is comprised of the seven chapters. In Chapter 1 (Introduction), we shall clearly state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is paper, the scope of the study, and the methodology. In Chapter 2 we shall consider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presbyterian polity and its developments in the early Church, the Middle age Christianity, and the Reformed Church. In Chapter 3, we shall articulate the offices of the pastors and the elders in light of the Bible and the denominational constitutions. In Chapter 4 we shall in depth deal with the conflicts between the pastors and the elders. And we will also discuss the efforts that the churches in other countries have made to prevent or deal with such conflicts. In Chapter 5, we shall analyze the result of a questionnaire which mainl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ors and the elders. In Chapter 6, we shall suggest a cooperative ministry model.

I hope that this paper can be helpful to the pastors who want to do the pastoral

ministry without having unnecessary conflicts with the elders.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이제 또 한 과정을 마칩니다. 대학원 졸업논문을 쓴 지 꼭 18년 만에 목회학 박사과정 논문을 마치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바쁜 목회의 일정 속에서 과제를 준비하고 꼭 연구하고 싶었던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 입학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후원해주신 양평교회와 영신교회 장로님들과 교우들, 그리고 동역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아내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이 과정을 마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상하게 지도해주신 권문상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풀러 사무실의 김태석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집필하면서 얻은 귀한 경험과 깨달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 목회의 현장에서 목사와 장로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지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큰 소득으로 알겠습니다. 부디 이 작은 졸고가 목회 현장에서 갈등하는 동역자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길고 긴 7년의 재학기간 중 과제를 제때에 준비하지 못해서 마음을 태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특별히 논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배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영신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께 다시금 머리를 조아려 감사드립니다. 또 논문 자료준비 및 정리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영신교회 교역자들과 끝까지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황미숙 준목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강의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신 김세운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04년 6월

이 영 무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말씀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장로교의 기원	4
제 1 절 교회의 여러 정치 형태	4
1. 교황정치	5
2. 감독정치	5
3. 회중정치	6
4. 장로정치	7
제 2 절 장로정치의 성서적 배경	7
1. 구약성서적 배경	7
2. 신약성서적 배경	10
가. 장로의 임무	10
나. 장로의 종류	11
다. 장로의 선택	11
라. 장로회 제도	12
제 3 절 초대교회와 장로정치	12
제 4 절 증세교회와 교황정치	13
제 5 절 피터 왈도(Peter Waldo)의 장로정치	15
제 6 절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만인제사장주의	16
제 7 절 존 칼빈(John Calvin)과 장로정치	18

1. 칼빈과 제네바 생활	18
2. 교회법령과 장로회 체제	20
제 8 절 세계로 번져가는 장로 정치사상	22
1. 위그노(Huguenots)와 프랑스 교회	23
가. 최초의 개혁교회	23
나.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조직	24
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장로정치	24
라. 종교전쟁과 대학살	25
2.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교회	26
가. 존 녹스	27
나. 최초의 장로교 총회와 제1 치리서	28
3. 잉글랜드 청교도와 장로정치	28
가. 잉글랜드 개혁자들과 장로정치 사상	29
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장로정치	29
4. 미국교회와 장로정치	31
가. 프란시스 매케미와 장로교회의 설립	31
나. 미국 장로교회의 직제	32
제 3 장 장로교의 목사와 장로의 직무	34
제 1 절 목사직에 관한 고찰	34
1. 성서적 배경에서 보는 목사의 직무	35
가. 감독으로서의 개념	35
나. 목자로서의 개념	36
다. 복음전도자로서의 개념	37
2. 교단의 헌법이 규정하는 목사의 직무	38
가. 예배인도자	38
나. 설교자	40
다. 성례 집행자	41

라. 교사	43
마. 목양자	44
바. 치리자	46
제 2 절 장로직에 관한 고찰	48
1. 칼빈이 이해하는 장로직	49
2. 교단의 헌법이 규정하는 장로의 직무	50
가. 교인들의 대표	50
나. 치리자	51
다. 목회의 협력자	52
라. 위로자	53
마. 권면자	53
제 4 장 목사와 장로의 갈등	56
제 1 절 한국의 목사와 장로의 사역의 갈등	57
1. 목사직의 오해가 가져오는 결과	57
가. 독선적인 목회	58
나. 목회자의 권위주의적 태도	59
다. 목회직의 세습화가 가져온 교회의 사유화	60
2. 장로직의 오해가 가져오는 결과	61
가. 장로직의 권력화	62
나. 장로직의 명예직화	63
3. 일반적인 목회 현장의 갈등요인	63
가. 주도권의 문제	63
나. 역할의 혼동	64
다. 지도자로서의 자질	65
4.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서 온 갈등	66
가. 유교의 계급주의	66
나. 유교의 신분주의	67

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으로 야기된 교회분열 사례	67
제 2 절 외국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관계	72
1.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72
2. 스코틀랜드 교회	74
3. 화란 개혁교회	75
4. 스위스 개혁교회	76
제 5 장 목사와 장로의 관계 분석	78
제 1 절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	78
1. 측정도구	78
2. 응답자의 배경분석	79
3. 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 통계와 분석	83
제 2 절 설문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92
제 6 장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을 위한 제언	95
제 1 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	95
제 2 절 평신도 신학의 입장에서 본 목사와 장로직의 변화	96
제 3 절 담임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 정착을 통한 개선	97
제 4 절 장로의 계속교육 과정개설	99
제 7 장 결 론	101
부록	103
참고문헌	110
VITA	114

표 목 차

<표 1> 연령별 분포	78
<표 2> 학력	79
<표 3> 장로 응답자의 직업 분포	79
<표 4>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위치	80
<표 5>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의 창립횟수	80
<표 6>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 장년주일 출석현황	81
<표 7> 응답자의 안수 및 임직 횟수	82
<표 8> 목사 사역의 우선순위	82
<표 9> 장로의 사역 중 우선순위	83
<표 10> 임기제에 대한 목사의 의견	84
<표 11> 임기제에 대한 장로의 의견	85
<표 12> 장로들의 모범적 생활에 대한 응답	86
<표 13> 장로와의 갈등에 대한 응답	86
<표 14>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86
<표 15> 장로들이 경험하는 목사와의 갈등	88
<표 16> 목사의 직무수행에서 나타나는 독단	88
<표 17> 목사의 목회전반과 방향에 대한 만족도	89
<표 18> 장로들이 목사에게 가지는 불만	9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목적

가칭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불신자와 성도들의 시각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설문 내용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개종의사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불교(40.3퍼센트), 천주교(37.4퍼센트), 기독교(22.3퍼센트)의 순으로 대답하였다.¹⁾

또 한국의 모 언론사가 실시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천주교의 신부와 불교의 승려에 뒤이어 순위를 얻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할 내용이다. 짧은 선교의 역사가운데서도 경이적인 부흥을 이룩했던 한국교회가 1990년 대 이후로 정체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설문 결과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교회 성장의 정체는 사회의 변화와 고소득으로 인한 종교의 필요성 감소, 편리한 생활제도가 가져온 종교에 대한 무관심, 여가 시간이 늘어남으로 오는 레저 문화의 발달과 다양화 등 많은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개신교의 지속적인 분열과 교파주의, 그리고 개 교회 지도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야기된 교인들의 냉소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강단에서는 늘 사랑과 용서, 평화를 설교하고 기도하지만 교인들의 눈에 비추어진 목사와 장로의 행동과 갈등의 관계는 또 하나의 위선으로 비추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개 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간의 끝없는 갈등은 선량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1)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타종교인 및 비종교인과의 비교분석-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45.

부터 등을 돌리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하였다. 실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뿐이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전래의 초창기에는 목사와 장로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양 무리를 돌보며 협력하고 희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속화되면서 목사와 장로가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이탈하여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자신의 직분과 권위를 지나치게 주장하여 성경의 원리에서 탈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또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섬김의 직분을 망각하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목사가 매사에 장로들의 허락과 감독을 받아서 목사가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목사와 장로의 본분을 넘어서는 성서적 탈선은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가로막는 암초가 되었으며 동시에 교회 성장과 성숙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성서적 원리 하에서 그 직무를 조명하여 협력적인 사역자로서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교회의 지도자요 당회원으로서 목사와 장로의 직무고찰 및 그들 간의 갈등과 해소를 위한 방안제시에 관한 범위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논문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의 의의와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장로교의 기원을 교회의 여러 정치 형태와 함께 다룸으로써 장로교가 어떤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가를 서술하겠다. 3장에서는 목사직과 장로직에 관한 고찰로 성서에서 보는 목사의 직무와 교단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목사의 직무를 다룬 것이며, 칼빈이 이해하는 장로직과 교단의 헌법이 규정하는 장로의 직무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목사와 장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역의 갈등을 다루면서 목사직과 장로직의 오해에서 야기된 결과를 제시하고,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서 온 갈등을 다룬 후에 외국 장로교회의 목사

와 장로의 관계를 다루겠다. 5장에서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분석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보겠다. 6장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을 위한 제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리더십, 평신도 신학에서 본 목사와 장로직의 변화, 담임목사와 장로의 임기제 정착, 장로의 계속 교육 과정 개설 등을 제시한 후에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제 2 장 장로교의 기원

세상의 어느 조직이나 단체이든 그 출발과정이 있고 변천사가 있다.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현재의 교회의 제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변천되어 왔는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좀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을 통해 교회의 정치형태를 비롯하여 오늘의 장로교 제도가 출발하게 된 성서적인 배경과 증세시대, 그리고 존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장로교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 1 절 교회의 여러 정치 형태

에베소서 4장 5-6절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한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하나이지만 불행하게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에 예배의식이나 교리의 차이,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강조점에 따라 여러 개의 교단이나 교파로 나뉘어져 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의 구분은 크게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서방교회와 러시아와 동부 유럽 중심의 동방교회로 나눌 수 있고, 서방 교회 가운데는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천주교회(Roman Catholic Church)와 루터의 개혁사상을 따라 시작된 기독교회(Protestant Church)로 분류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 일어난 기독교회는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루터파, 침례교회, 성공회 등의 수많은 교파가 있다.²⁾

2) 오덕교, 장로교회사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10.

대개 이러한 교회의 분리는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에 크게 좌우되고 교파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 정치 형태를 형성하게 하였다.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교황정치(papacy), 성공회나 감리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감독정치(episcopacy), 형제단이나 침례교회가 채택하는 회중정치(congregationalism)와 개혁교회들이 받아들이는 장로정치(presbyterianism)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교황정치

베드로의 교황권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은 교황정치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교황정치 하에서는 한 사람 교황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통치한다. 그들은 기록된 전통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 교회의 전통이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규범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들은 교회를 계급 구조적인 단체로 이해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조직을 세우셨다는 것이다.³⁾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고,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이며 교황 밑에 추기경단, 대주교, 주교, 부제 등의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황 정치 제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일사분란하게 관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 권력으로 인한 부패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대치되는 원리이다(막 10:45).

2. 감독정치

감독이 주관하는 정치제도이다. 감독이 사도로부터 전래되는 전권을 받아 교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믿고 그 정치에 복종한다.⁴⁾ 감독주의자들은 교황정치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계급적인 구조로 이해한다. 그래서 상회와 하회의 구분이 분명하고, 성직자간에 계급이 존재하고, 지역교회의 평등권과 자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독은 대

3) Ibid., 11.

4)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시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2), 96.

개 관할 교구 내의 성직자들과 교회들을 관장할 권한이 있었고, 목사들을 해당 교회들에 임명하였고, 권징 특히 출교를 총 감독하였으며, 교회의 행정관리로 활동하였다.

감독정치는 교황정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교황주의자들이 지상의 모든 나라를 한 교황 밑에 통치하려고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감독주의자들은 한 국가의 영역에서 한 감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이요,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한다. 이 같은 감독정치에 속하는 교회로는 영국의 성공회와 미국과 한국의 감리교회 등이 있다. 성공회에서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그러한 권세를 가진다.⁵⁾

3. 회중정치

회중 정치의 기원은 영국의 교회를 강제로 통일하려는 목표를 지닌 엘리자베스 1세의 재위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수의 뜻을 달리한 사람들은 국교회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회집 교회'(gathered church) 원칙에 찬성하였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들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훗날 '회중주의자들'이란 칭호를 얻게 된 사람들의 선구자였다. 이들은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과, 그분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들은 교회들은 주교들이나 관리들에 의해 종속되지 않으며, 성직은 장로들의 손에 의해 부여되는 게 아니라 교회전체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⁶⁾

회중정치는 로마 천주교회나 성공회와 같은 교회구조와는 대립되는 조직으로 침례교회와 회중교회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회중 정치 주의자들은 교회업무와 세속 정부의 업무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지역 교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택, 예산의 자율적인 집행, 권징의 자율적인 실시를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교회 사이,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의 평등을 강조하며, 계층구조는 어떤 형태라도 부정한다. 또한 그들은 교회의 연합 사상을 배척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연합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조직화되면 교회조직이 계급구조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⁷⁾

5) 오덕교, 장로교회사, 12-13.

6) 교회사 대사전 3 (서울: 기독교지혜사, 1994), 862.

4. 장로정치

장로정치에서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각 치리회는 상하는 있으나 서로 연결된 공동체이므로 어떤 회의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곧 전국교회의 결정이 될 수 있다.

장로 정치주의자들은 계급적인 구조가 교회를 구성할 수도 없으며 교회의 본질이 될 수도 없다고 믿는다. 교회 구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로교도들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의 만인제사장직에 근거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장로와 장로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의 평등을 강조한다. 장로교회는 이와 같이 회중교회 정치의 자율과 평등사상을 수용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점이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와의 차이점이다.⁷⁾

제 2 절 장로정치의 성서적 배경

장로정치는 성서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장로는 백성의 원로 혹은 대표로서 그 분명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신약성서에서는 주로 초대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으로 존속되어 갔다. 이 단원에서는 구약과 신약성서에서 나타난 장로 제도의 현상이나 과정 등을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구약성서적 배경

장로제도는 족장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고대 사회는 족장에 의하여 다스려졌고, 족장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가 다스리던 사회에 권세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족장 제도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나이 든 원로들에 의한 통치의 길을 열었다. 후에 족장 정치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장로 정치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7) 오덕교, 장로 교회사, 13.

8) Ibid., 14.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명칭은 족장이 아니라 ‘손 위’ 또는 ‘형’, ‘나이든 장자’ 또는 ‘나이든 사람’을 의미하는 가돌(gadol)과 자켄(zaken)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구약성서에서는 ‘장로’의 어원이다.⁹⁾

장로는 가문이나 지파의 대표자였으며, 때로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다. 출애굽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설명해주었다(출 4:29). 후에 광야 여행 중에 모세는 장로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였다.(민 16:25) 모세는 장인의 충고에 따라,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 백성을 다스릴 ‘두목들’을 선출하였으며(출 18:24-26), 후에는 자신의 과중한 재판 업무를 덜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대로 70명의 장로를 선출하였다. ‘장로’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119번이나 언급되어 있다.¹⁰⁾

장로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서 그들의 통치제도로 채택되었다. 장로들은 백성들에 의해 공인으로 인정되었으며 명실상부한 백성의 대표자들이었다. 모세는 여호와께 명령을 받아 그 모든 말씀을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진술하였다(출 19:7). 장로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으며(레 9:1), 고라의 일당이 반역하였을 때 처리하였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송별사를 행하면서 장로들에게 명하였고(신 29:10), 사무엘 시대에 장로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사무엘 선지에게 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다(삼상 8:4-5). 장로들은 헤브론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며(삼하 5:31),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봉헌하였다(왕상 8: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을 통하여 발언하였고, 장로에 의하여 말한 것만을 백성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간주하였다.(출 4:29; 수 24:1; 삼상 8:4) 구약의 교회 정치 체제는 장로들에 의하여 다스려진 장로 정치였다.¹¹⁾ 장일선은 구약성서에서 장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¹²⁾

9) 오덕교, 15-16.

10)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1), 1471-1472.

11) 오덕교, 장로교회사, 17.

12) 장일선, “구약성서의 장로관”, 전환기의 선교교육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88), 344-346.

첫째,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장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회지도자로서 전쟁시 앞서나가서 싸우는 전쟁 영웅들이었다. 둘째, 장로들은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공동체내의 정의를 실현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법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살폈다. 셋째, 장로들은 예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자 시내산에 오를 때 오직 칠십인의 장로들만이 동행이 허락되었다(출 24:1-2). 다만 이들이 모세와 다른 점은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장로들은 거리를 두고 옆드려야만 했다. 넷째, 장로들은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의하면 장로들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섯째, 장로들은 충고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였다. 구약성서에는 “성문 앞”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는 광장의 넓은 뜰을 의미하는 데 장로들은 이 성문 앞에 앉아서 고아와 나그네, 소외된 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고민과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자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구약 장로제도에서 장로는 종교적 직분이었지만 제사장과는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적 직분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장로가 정치적 기능을 가지면서도 종교적 직분이었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는 정교일치의 특성 때문이었다.¹³⁾

포로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전예배가 불가능해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다. 회당에는 장로석이 따로 있었으며, 장로들은 회원들의 영입과 추방을 결정하였다. 회당은 10가족이면 조직할 수 있었고, 회당운동을 위하여 3인의 장로가 있어야만 했다.¹⁴⁾ 구약의 교회조직은 그 권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이었다. 포로시대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통치기관은 백성에 의해 선출된 산헤드린, 곧 장로회로 그 권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였다. 이와 같이 교회 체제는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라 평등과 자율을 중시하는 상향적 장로정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로회의는 율법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는 다수의 뜻을 따랐다. 그러나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맡겨 우림과 둠밈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13) 이성희, “장로직의 성경적 본질”,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47.

14) 오덕교, 장로교회사, 18.

2. 신약성서적 배경

신약의 교회 정치원리는 장로들에 의해 통치된 장로 정치였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안디옥 교회가 부조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연보를 전달하였다(행 11:3).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였다”(행 14:23). 그리고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을 때,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행 15:2-6, 22-23).

바울 일행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전도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장로들의 결정을 따라 가르쳤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조직하였다(행 20:17 이하) 위의 말씀들을 감안해볼 때, 장로제도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제도이며, 유대인의 전통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세워진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장로의 임무¹⁵⁾

구약시대는 문자 그대로 연장자로서 원로의 뜻을 가졌으나 신약시대는 연령보다는 신령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자라야 했다(딤후 3:1-7). 무엇보다 장로는 양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과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딤후 5:17) 것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는”(행 20:28) 일에 장로는 주력하여야 했다. 여기서 ‘치다’는 말은 ‘꿀을 먹인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장로에게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딤후 5:17)와 심방하여 보살피는 직무(약 5:14)가 있다. 이 보살피며 감독(overseeing)하는 직무 때문에 성경에서 장로들을 때로는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다고 했는데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다. 신약성경에는 감

15) 김의환, “장로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본다”,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43-44.

독이란 낱말이 다섯 번 나타나는데(행 20:28; 빌 1:1; 딤후전 3:2; 딤후 1:17; 뱀전 2:4) 모두 감독과 장로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나. 장로의 종류¹⁶⁾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다스리는 장로는 보통장로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와 교사로 나누어진다(행 13:1).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장로의 우열은 가릴 수 없지만 교회를 섬길 때 기능적인 차이는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였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은 장로들을 귀하게 여기되 목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존경을 표할 것을 명하였다.

다. 장로의 선택¹⁷⁾

장로선택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가롯 유다를 대신할 인물 선택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거방법을 사용한 것(행 1:15-16)이나 일곱 집사 선택에서도 제자들이 선거방법을 택한 것(행 6:3-6)을 본다면 장로들도 선거에 의존하여 선택하였음이 분명하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

16) 오덕교, 장로교회사, 23-24.

17) 김의환, “장로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본다”, 45-46.

을 택하였다”는 잘못된 표현이 있다. 여기에 쓰여진 ‘택하였다’는 동사는 원어로 ‘케이로토네오’인데 그 뜻은 “손을 들어 선택했다”는 것이다. 장로교회가 선거에 의하여 장로를 선택하는 공회적인 대의 정치를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성경적인 ‘모델’을 따른 때문이다. 장로교회가 뿌리내린 나라일수록 대의정치의 전망이 밝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 장로회 제도¹⁸⁾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을 때, 한 교회의 여러 장로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를 대표하여 온 여러 장로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여러 교회를 대표하여 모인 장로들의 회집을 우리는 장로회, 즉 노회라고 부를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친히 안수한 사실을 상기시켰다(딤후 1:6). 그러나 또 다른 데서 바울은 그 안수식에 자기뿐 아니라 여러 장로들이 함께 참여한 사실을 말하였다. “꼭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딤후 4:14)라는 바울의 말에서 장로회가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회중에 의한 자율적인 일군의 선택이나 지교회의 자율적인 예산 사용에 관한 일 즉,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한 일이나, 마케도니아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를 제공한 것을 고려해보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인 평등, 자율, 연합이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초대교회와 장로정치

초대교회는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에 의해 운영되었고, 장로 또는 감독들에 의해 다스려졌다. 인간적인 권위로 다스리지 않고 오직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스려졌다. 또 계급 구조적인 감독주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성도는 평등한 가운데 서로 섬기곤 하였다.

사도 시대를 지나 교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모든 교회와 교회

18) Ibid., 45.

사이에 평등함과 지역교회의 자율성이 유지되었다.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Clement of Rome, 92-101)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가 장로와 집사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그들의 권세는 동등하다고 하였다. 또 그는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분이라고 하였고, 이 직분은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 교회에 의하여 선택된 자들이므로 그들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⁹⁾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프(Polycarp)도 110년경에 '빌립보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의 직분은 집사와 감독만이 있으며 직분의 높고 낮음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레니우스(Irenaeus, 130-220)도 장로와 감독은 명칭이 다르지만 같은 직분으로 간주하였다. 교부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2세기의 교회들은 장로 정치 원리에 따라 다스려졌음을 알 수 있다.

5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장로정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교회의 정치 체제였다.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은 장로 정치의 기본원리인 감독과 장로의 동등을 주장하였다. 어거스틴 당시의 교부 제롬(Jerome, 342-420)도 고대 기독교 사회에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감독을 장로보다 더 높은 위치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이단자의 출현과 같은 초대교회의 긴급한 문제들에 부딪치면서 장로중심의 초대교회는 점차로 감독 중심적인 체제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²⁰⁾

제 4 절 중세교회와 교황정치

사도시대 이후 교회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어떤 이는 순교하기도 하고 일부는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박해가 끝난 후 교회는 배교자의 처리와 이단의 척결,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 가는 과정에서 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35-107), 리용의 이레니우스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되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감독 중심 사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교권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감독주의 사상의

19) 오덕교, 장로교회사, 31.

20) Ibid., 32.

로 변질되었다. 특히 교부 키프리안(200-258)과 제롬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독직이 다른 직분보다 기능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급 구조적인 감독 정치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특히 키프리안은 “감독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감독 안에 있다. 누구든지 감독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감독직의 사도적 전승을 주장하였다.²¹⁾

이때부터 평등과 자율의 바탕 위에 세워진 장로정치는 종결되고 감독중심의 교회정치가 사제주의 신학과 결합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정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황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 마음대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거나 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계급 구조적인 교황정치는 베드로의 우위사상과 교황의 베드로 계승사상에 기초한다. 로마천주교회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모든 사도들보다 위에 세우셨고, 그러한 베드로의 권세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로마의 감독은 이러한 베드로를 계승한다고 주장한다.

로마 천주교회는 콘스탄틴 대제(288-337)가 개종하고 로마제국의 박해가 끝나면서 시작되었다. 콘스탄틴의 개종이전 기독교도들은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목사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많은 지원자가 일어났고, 목회자가 존경받게 되자 목회자 사이에 서로 높아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큰 교회의 감독이 지방 교회의 감독보다 중시되었고 대도시의 감독이 작은 도시를 지도 감독하면서 교구 주교(bishop of diocese)가 탄생하였다. 한 나라의 수도에 위치한 감독은 자신을 대주교(metropolitan bishop)라고 불렀다. 또한 대주교 사이에 권력 투쟁이 시작되면서 추기경(patriarch: 총주교)이 생겨났다. 추기경은 5명으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감독들이었다.

그러나 추기경 사이에서도 평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누가 제일 위대한가 하는 싸움이 시작되고 그 결말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추기경 사이에서 벌어져 로마의 추기경이 이겨 그가 ‘로마 교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장로에 의한 대의적 정치형태를 가진 신약 시대의 교회가 사제, 감독, 대주교, 추기경,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진 로마 교회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아왔

21) Ibid., 34.

다. 이 제도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500년 이상 걸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로마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 힐데브란드(Hildebrand) 때에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는 1073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된다. 그때에는 벌써 교황들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며, 또한 교황은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국왕의 즉위와 폐위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²²⁾

그는 독일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권에 도전하자 파문함으로 그의 권세를 과시하였다. 그레고리의 파문을 받은 하인리히는 지지 세력을 잃게 되었고, 알프스를 넘어 교황이 거주하는 카녓사에 가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빈 후에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²³⁾ 이때의 교회는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항들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 천주교회는 연옥의 교리와 일곱 성례, 마리아 숭배 등 많은 이탈된 전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교회당에는 성화나 성상이 꼭 들어찼는데,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예배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명목으로 장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성화나 마리아 상을 예배하게 되었다.

제 5 절 피터 왈도(Peter Waldo)의 장로정치

교황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 프랑스 리옹의 부자 상인 피터 왈도에 의하여 일어났다. 왈도는 1173년 어느 날, 마태복음 19:21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심하고, 말씀을 따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부패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하여 신약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²⁴⁾

그는 또한 로마 교황청의 계급구조가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하고, 연옥설과 미사와 화체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왈도

22) Walter L. Lingle, 세계 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이야기 (Presbyterians: Their History and Beliefs), 이종전 역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2), 22.

23) 오덕교, 장로교회사, 47.

24) Ibid., 47-48.

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왈도파(Waldeness)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예배에 있어서 인위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들은 성경 66권만을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인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하신 증보자라고 하였다. 연옥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 고안된 것이며, 교회절기나 성자승배, 성수, 금욕주간, 미사 제도를 부인하고 오직 세례와 성찬만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왈도파는 오늘날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장로교회의 2직분 사상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교회 직분을 장로와 집사로 구분하였고, 노회 제도를 인정하였다. 집사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주요한 의무였으며, 장로는 처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 장로는 회중이 추천한 후에 당회에서 선거하여 장립식을 거쳐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장로장립은 교회에서 행하였고, 장립 예배에는 통상적으로 설교와 권면이 있었다. 권면은 (1) 회중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라는 것과 (2) 목사를 도와 주를 섬기라는 것과, (3) 오류를 책망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왈도파 교회에서 계급구조는 인정되지 않았고, 모든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렸다.²⁵⁾

왈도파의 이러한 장로 정치사상은 로마 천주교회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왈도는 1184년 교황 루시우스 3세에 의하여 소집된 베로나 교회 회의에서 활동금지 조치를 받았고, 1229년 교황 인노첸트 3세에 의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로마 천주교회에 의하여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단으로 정죄된 이후 왈도파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이 적어도 백만 명 이상 로마 교황청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제 6 절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만인제사장주의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을 하는 한스 루터(Hans Luther)의 아들로 태어났다. 루터는 1507년 신부로 임직이 되었고, 계속해서 웬덴버그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여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루터는 매우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신부였지만, 1510년 로마에 갔을 때 로마교회가 매우 사치하고 부패한데 대하

25) 오덕교, 49.

여 큰 충격을 받았다.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 시편 22편과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발견하였다. 그 후 그는 로마 천주교회의 신학이 너무나 성경에서 멀리 떠나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520년 로마 천주교회의 사제주의에 대항하는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 기독교회 정치사상의 기초가 되는 만인 제사장 주의를 주장하였다.

루터는 1520년 출판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로마 천주교회의 7가지 성례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예수께서 세우신 참된 성례는 오직 성찬과 세례의 두 가지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라고 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의 증보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루터는 이와 같은 만인 사제 사상에 근거하여 증세의 사제주의를 부정하였다. 1520년 11월에 쓴 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교황의 우위성을 부정하였다. 이 책을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하면서, 그는 교황을 ‘종들의 종’으로 묘사하고, 결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종들 가운데 종이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비참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아첨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하늘과 지옥, 연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첨하는 이들은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당신의 원수입니다...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적 그리스도요, 우상이 아닙니까?²⁶⁾

또한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주는 글에서 만인 제사장직론에 근거하여 세 가지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복음을 통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이신칭의(구원)받고 세례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성직계층이 평신도 국가 공직자들보다 우월할 수 없고, 교황만이

26) Ibid., 60-61.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며, 평신도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교황과 한 기독교 농부 사이에는 신분이 아니라 직책만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²⁷⁾

이와 같이 루터의 개혁사상은 후대의 개혁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오직 성경사상과 만인 제사장주의와 교직자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인정한 것은 장로교회 정치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목사의 자격으로 개인적인 내적인 소명, 교회로부터의 청빙, 교회에 의한 위임을 주장한 것, 목사의 청빙과 선택이 회중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주장은 나중에 개혁교회 정치 원리의 기초가 되었다. 루터의 가르침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복음주의”, 즉 복음을 고집하는 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교회에 의해서 ‘항의자’(protestant)라고 불려졌다.

제 7 절 존 칼빈(John Calvin)과 장로정치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은 개척자였다면,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고 또한 성경으로부터 칼빈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신학체계와 장로주의 라고 불려지고 있는 대의적 교회정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은 존 칼빈의 몫이었다. 칼빈은 긴 세월 동안 잊혀져 왔던 장로주의 교리와 정치원리를 부활시켜 근대적인 장로교회를 형성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칼빈의 성장환경과 제네바 생활, 그리고 그의 장로 정치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1. 칼빈과 제네바 생활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동북방 58마일 지점에 있는 피카르디 지역의 작은 도시인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칼빈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서 파리에 유학하여 인문주의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칼빈을 사제로 만들 생각으로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다. 14살

27)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74.

때 파리대학에 들어가 라틴어, 논리학 철학을 공부하고 그 후 법학 연구에 대한 뜻을 가지고 오레안스(Orleans)와 부르지(Bourges)대학에 들어가 당시 프랑스의 가장 유능한 교수들 밑에서 수년간 공부했다. 이 법학 연구가 그에게 많은 흥미를 주었고 후에 그의 신학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²⁸⁾

그는 1533년 로마 천주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였는데 칼빈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 “갑작스런 회심”이었다고 말한다. 같은 해 11월 친구 니콜라스 콥의 파리대학 총장 취임을 연설문을 대신 써주었는데 그는 이 연설문에서 모든 학문의 유용성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개혁을 주장하여 교회의 기피인물이 되어 수배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칼빈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3년간 가명을 써가며 은신의 생활을 했는데 그는 많은 시간을 명상과 기도로 보냈다.

그리고 칼빈이 27세가 되던 1536년 유명한 기독교 강요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를 출판하였다. 이 일로 인해 칼빈은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독교 강요는 당시의 종교개혁 운동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 책은 제1권 신론, 제2권 기독교론, 제3권 성령론, 제4권 교회론으로 되어있는데 칼빈은 교회론에서 장로제도의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²⁹⁾

그 무렵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기에, 칼빈은 프랑스에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영내로 망명할 결심을 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스위스를 경유해서 독일로 가는 것이었다. 1536년 8월 제네바의 어느 여관에 머물던 칼빈은 체류소식을 듣고 달려온 제네바의 개혁자 윌리엄 파렐(William Farel)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제네바에 머물면서 개혁을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던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독일에서 지낸 3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생애를 이 도시에서 지내게 되었다.

칼빈은 1536년 9월 1일 제네바의 성베드로 교회(St. Peter's Cathedral)에서 설교함으로서 이 도시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설교가로서 만이 아니라 개혁자이기

28) 월터 링글, 세계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이야기, 이종전 역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2), 29.

29) 김철동, “장로제도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바람직한 장로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목회학 박사원, 1998), 51.

도 했다. 제네바를 복음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파렐과 함께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와 교회 권징서를 작성하여 1537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는 이 문서들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모든 제네바 사람들이 이를 공적으로 수용하고 서약할 것을 주장하였다.

많은 이들은 기쁨으로 동의했지만 복종을 거부한 반대파도 있었다. 결국 심한 반대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자 1538년 4월 22일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네바는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해지고 카톨릭의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비판과 회유는 더 거세어졌다. 결국 시의회는 칼빈이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고 거절하던 칼빈은 파렐의 간청에 못 이겨 뜻을 꺾고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돌아왔다.

2. 교회 법령과 장로회 체제

테오도로 베자(Theodore Beza)는 이 당시의 칼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긴급한 요청에 의하여 돌아와서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네바를 크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칼빈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교리와 교회의 권세가 온전히 보장된 장로 제도가 세워지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장로 정치와 교회 질서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법을 제안하였고, 이는 모든 시민의 동의로 통과되었다.³⁰⁾

여기서 베자가 말하는 법적인 장치는 바로 ‘교회 법령’이다. 칼빈은 교회 헌법을 통하여 교회 권징과 교회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교회 개혁을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사역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신약 교회의 직분은 목사, 교사, 집사, 장로 등이라고 하였고, 특히 교사직과 장로직은 귀족 조건으로 제시한 기독교 교육과 권징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시의회가 이 ‘교회 법령’을 인정했을 때(1542) 제네바의 교회는 사실상 장로교회

30) 오덕교, 장로교회사, 73.

가 되었다. 그 교회는 명칭상으로는 장로교회라고 불려지지 않았고 개혁교회(Reformed Church)라 일컬어졌으나, 정치형태로는 완전한 장로교회였다.

칼빈사상에서 무엇보다 교회 정치체제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 정치에 평신도를 가담시킨 일이다. 칼빈을 증심한 개혁자들이 주장하기 전에는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1400년 이상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다스려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칼빈은 또한 감독 제도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칼빈이 폴란드 왕에게 1555년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주나 도시에 감독이 있어 그곳의 모든 일을 돌보며 그들 중에 대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로마 천주교회의 체제 그대로는 아니었다. 그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로, 다스리는 장로와 구별하여 목사에게 감독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³¹⁾

칼빈에 의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성례를 집행한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사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고, 신학적으로 건전하여야 한다. 목사는 지역교회의 청빙에 의해서만 임직되는데, 목사 시험을 치르고, 그 직분에 대한 교훈을 받은 뒤에 안수하도록 하였다. 목사의 안수는 사도적인 기원을 갖지만 미신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당분간 생략하도록 하였다. 목사에게 교리적인 오류가 발견될 경우, 목사들이 모여서 당사자와 그 문제를 토의하게 하였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통치자에게 보내어 징벌토록 하였다.

또한 교사는 목사와는 구별된 직분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초하는데 칼빈은 주로 교육을 위한 직분으로 이해하였다. 교사에게는 바른 신학을 성도들에게 교수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잘 준비된 목사들을 계속 배출하는 사명이 있었다. 제네바에서 교사들은 장년과 어린이 교육에 전념하였고, 일주일에 3번, 곧 월요일, 수요일과 금요일에 신구약을 강해함으로서 성도들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

칼빈은 집사의 직무를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구제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병자를 간호하는 것이다. 집사들은 병원을 돌보며 사회보장제를 집행하고, 구제기관을 감독하므로 사회복지 업무를 감당하였다. 또한 칼빈은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보고, 장로의 사역은 설교 사역과는 구별되는 다스리는 직분으로 생각하였다. 장로

31) 손병호, 장로교회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유양계리온, 2000), 134-135.

는 모든 회중의 생활을 관찰하며 권면하되 특별히 형제애를 가지고 처리하는 직분이다. 제네바의 모든 구역에는 영적인 문제를 살피는 한두 명의 장로가 있었고, 장로회가 있어서 교회를 처리하고 교회 법령을 집행하였다. 이 장로회는 5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로서 조직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현대 장로교회의 당회와 닮았고, 노회와 비슷한 조직이었다. 칼빈은 장로의 피택은 교회의 회중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지만, 시의회가 장로 선거에 강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그의 이상을 다 실현하지는 못했다.³²⁾

칼빈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반대하였다. 더구나 전 회중이 직접적으로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회중에 의해 대표가 뽑히고 그들에 의하여 교회 업무가 수행될 때에 질서가 유지되므로, 교회 회의는 회중의 대표인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 8 절 세계로 번져 가는 장로정치 사상

칼빈의 성경 적인 장로 정치사상은 제네바에만 머물지 않았다.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재발견된 장로 정치사상은 온 유럽에 번져 나갔다. 이는 칼빈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공헌이기도 하였다. 칼빈은 성경에서 재발견한 복음을 유럽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개하였고, 종교 개혁 운동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칼빈이 재건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학교'에서 수학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빈이 발견한 장로 정치사상을 보급하였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동 종교 개혁의 중심지였던 이태리와 스페인에도 칼빈의 신학사상이 전파되고 장로 정치가 소개되었다.

32) Walter L. Lingle, 세계 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 이야기 (Presbyterians), 이종전 역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2), 36.

1. 위그노(Huguenots)와 프랑스 교회

프랑스 위그노³³⁾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자들이며 교회 정치에서는 장로주의자이다. 위그노 교회를 만든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멀리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까지 프랑스 역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교회 국가였다. 문예부흥의 여파가 프랑스에 닥쳐왔을 때 프랑스 학자들 가운데 성경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개종하게 되었다. 칼빈이나 파렐이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처음 프랑소아 1세(1494-1547)와 그의 여동생 마가레트는 종교개혁 운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마가레트의 딸 제인(Jeanne)은 프로테스탄트로 완전히 개종했다. 제인의 아들이 나바르공 앙리(Herry of Navarre)로서, 후에 앙리 4세(1589-1610) 왕이 된 사람이다. 종교개혁 운동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프랑소아 1세는 놀랐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때 칼빈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외국으로 망명했던 것도 이때의 일이다.

가. 최초의 개혁교회³⁴⁾

1555년 파리의 한 프로테스탄트 교도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목사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싶었지만 제일 가까운 제네바가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친구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교인 가운데서 장로와 집사를 뽑고 교회를 조직한 후에 칼빈에 의해 교육을 받은 젊은 지도자 잔 르 마르송(John le Marcon)을 그들의 목사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장로회의와 집사회의를 구성한 후에 이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로써 1555년9월 프랑스 안에 최초의 개혁교

33) 위그노파 교회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개신교파로, 1557년부터 위그노(Huguenots)라는 별명을 가졌다. 이 말은 eidgenossen(맹세한 동물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34) 오덕교, 장로교회사, 90.

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나.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 조직

개혁교회는 프랑스 내에서 급속히 자라났다. 개혁교회의 목사들은 주로 제네바의 칼빈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로 칼빈이 프랑스에 파송한 사람들도 120여명에 이르렀다. 교회가 성장해가자 교회 지도자들은 총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칼빈의 제자인 앙뜨 안느 샹뒤(Antoine de Chandieu) 목사가 프랑스 목사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1559년에야 실현되었다. 5월 26일에서 28일 사이 60여개의 교회에서 150여명의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 비밀리에 프랑스 개혁교회(The French Reformed Church)를 조직하였다.

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장로정치³⁵⁾

교회회의가 조직되자 이미 장로교 형태를 유지하면서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하던 200여개의 교회 가운데, 100개의 교회가 가담하여 개혁교회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총회는 신조와 정치를 채택하고, 칼빈의 충고를 따라 제네바의 장로법원과 유사한 향소법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칼빈의 제자 앙뜨안느 샹뒤가 초안한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권징 규칙서를 채택하였다. 신앙고백서는 4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이 칼빈의 사상이 표현되었다.

위그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제30조), 교회를 위해 목사, 감독자, 집사와 같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며(제25조, 제26조, 제31조) 이러한 직분자들은 회중에 의하여 선택되어야 하며(제31조), 모든 목사는 동일한 권세를 가졌고(제30조), 교회의 직분자는 교정과 오류 등의 교리문제만이 아니라 구제에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개혁교회의 신조는 1571년 총회(National Synod of France)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프랑스 개혁교회가 채택한 권징 규칙서에 나타나는 정치체제는 제네바 교회가

35) Ibid., 92-93.

행하던 것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였다. 모든 지역교회는 장로로 구성된 당회(sessions)를 두게 하였고, 당회들이 모여 노회(colloquies)를 구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대회(provincial synods)를 조직하고 전국적인 총회(General Assembly)가 있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였다. 또 이들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만을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직분으로 인정하였고, 이들로 당회를 구성하였다. 처음으로 조직되는 당회는 회중의 선거로 구성하였고, 당회원이 궐석될 때는 당회에서 부족한 숫자만큼 뽑도록 하였다. 노회는 모든 목사와 각 교회에서 파송한 1인의 장로 또는 집사로 구성하고, 일년에 2번씩 모이도록 하였다.

라. 종교 전쟁과 대학살³⁶⁾

국민적 규모에 의한 개신교 교회의 설립은 프랑스 카톨릭 교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군대를 동원해서 개신교회를 탄압하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개신교 측도 결코 만만치 않은 알았다. 대제독 코리니, 나바르공 앙리 왕자, 콩드와 같은 유명한 군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개신교회를 지키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도 하였다. 결국 양측의 대립과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1562년 3월 1일 바시에서 예배드리던 위그노들을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습격하여 60여명을 살해하였다. 이에 격분한 개신교도들이 콩드를 중심으로 4월 12일 로마 가톨릭과 프랑스 정부에 대해 전쟁을 선언하면서 위그노 교회는 군대화되었다. 이로써 30년 종교전쟁이 시작되었고 3000명이 넘는 위그노들이 살해되었다. 또 1572년 8월 24일에 기독교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살이 발발되었다. 다수의 개신교도들이 친 개신교파인 나바르공 앙리와 로마 가톨릭 교도인 마르그리트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파리로 몰려들었다.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로마 가톨릭은 엄청난 학살극을 준비하였다. 성 제르만 성당의 큰 종이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하여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졌고 파리와 프랑스 전국에서 한 주간 동안 7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개신교도가 학살되었다.

나바르공 앙리가 프랑스 왕에 등극하면서 자신은 가톨릭 교도로 개종하였지만

36) Walter L. Lingle, 세계 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 이야기, 45-48.

개신교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낭트의 칙령을 1598년 발표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1610년 앙리 4세는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첩자에 의해 암살되었고, 그때부터 낭트의 칙령은 사문화 되었다.

1685년 10월 22일 루이 14세는 프랑스에는 더 이상의 위그노가 없다는 구실로 낭트 칙령 폐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전국의 개신교 목사들은 두 주간 내에 국외로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많은 개신교도들이 외국으로 망명하였다. 적어도 400만 명의 개신교도가 프랑스로부터 없어졌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한다.

오늘날 프랑스 개신교회는 약5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파리의 유명한 설교가 버지르가 1888년 세계 장로교회 동맹(Pan-Presbyterian alliance)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그때 한 인사말에 프랑스 개신교회의 역사가 훌륭하게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로교회(프랑스 개신교회)의 대표입니다. 더욱 위대한 장로교회의 대표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허락되겠지요. 왜냐 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인간의 자유를 위해 고난을 인내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는 수적으로는 지금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은 많은 나라들을 증성하게 했습니다.³⁷⁾

2.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가 세계교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초기 미국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에 언제 누구를 통하여 최초 복음이 전해졌는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전래시기가 상당히 이를 것이라는 추측뿐이다. 역사상 기록으로는 약 563년경 콜롬바가 아이오나 섬에 근거지를 두고 복음을 전한 것이 최초의 일로 알려져 있다. 그후 2세기가 지나서 스코틀랜드의 동해안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신도들은 크루디스(Culdees)라고 불려졌다. 분명한 사실은 콜롬바나 크루디스는 로마 카톨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본격적인 로마 가톨릭의 영향은 스코틀랜드의 왕 말콤(Malcolm)이 색슨(Saxon)

37) Ibid., 49.

의 여왕 마가레트와 결혼하면서이다. 1150년경으로부터 약 400년간 스코틀랜드는 나라전체가 가톨릭화 되었지만, 드러나는 것은 무지와 미신과 부패였다. 스코틀랜드 최초의 종교개혁자는 패트릭 해밀톤(Patrick Hamilton)이다. 성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인 그는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다가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인 제임스 비톤에 의해 체포되고 1528년 2월 28일 화형에 처하여졌다.

그후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존 녹스(John Knox)의 추앙을 받던 조지 워셔트(George Wishart)이다. 그가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설교하고 있을 때 존 녹스는 양손에 칼을 들고 방해자들로부터 워셔트를 보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워셔트마저 추기경 데이비드 비톤에 의해 체포되고 이단으로 심문을 받은 뒤에 1546년 3월1일에 화형에 처하여졌다.

가. 존 녹스³⁸⁾

조지 워셔트의 처형에 분노한 프로테스탄트 신도 2-3명이 성 앤드류스 성내에 들어가 추기경 비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성밖으로 던져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존 녹스와 다른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성 앤드류 성 안에 은신하였다. 성안에서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만 설교자가 없었기에 그들은 녹스에게 설교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녹스는 임직을 받은 목사도 아니고 설교의 경험도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고 받아들였다.

그후에 녹스 일행은 프랑스 군대에 의해 포로가 되었고, 녹스는 1년 반 동안 프랑스의 갤리선(노예들이 노를 지어 나아가는 범선)의 노예로서 처참한 생활을 하였다. 그때 녹스는 프랑스어를 배웠고 이는 후에 제네바의 칼빈 밑에서 칼빈주의와 장로주의를 배울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와중에서 녹스는 제네바에 망명한 영국인들의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이 교회가 1년마다 목사, 장로, 집사를 선거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559년 녹스는 고국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장로교회 조직을 시작했는데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

38) 월터 링글, 59-61.

를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나. 최초의 장로교 총회와 제1 치리서³⁹⁾

1560년 8월 존 녹스의 노력아래 스코틀랜드 의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폐기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존 녹스와 5명의 존(Johns)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의회로부터 신앙고백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받고 4일 동안에 그것을 완성시켰다. 그것은 철저한 칼빈주의에 기초한 신앙고백서로 오늘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로 불린다.

1560년 12월 스코틀랜드의 제1회 장로교회 총회가 녹스의 지도 아래 개최되었다. 이 총회는 ‘제1 치리서’(The Book of Discipline)를 작성하였다. 제1 치리서는 교회와 사회에서 계급구조를 제거하였다. 모든 신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고, 이러한 평등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교회는 과부, 고아, 노인, 힘없는 사람과 압제받는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장로교회 정치를 성경적인 정치원리로 수용하면서 신약시대의 교회직원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직무를 맡으므로 교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였으며 목사의 주된 업무는 설교로서 설교의 주된 목적은 교훈과 설득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3. 잉글랜드의 청교도와 장로정치

루터와 칼빈에 의하여 시작된 교회 개혁운동은 잉글랜드에서 꽃피워졌다. 교회 행정 체제를 성경적으로 개혁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게 하려고 하였던 칼빈의 ‘하나님의 법’ 사상은 영국의 초기 개혁자들과 청교도에 의하여 크게 열매를 맺었다.

39) 오덕교, 장로교회사, 127-130.

가. 잉글랜드 개혁자들과 장로 정치사상⁴⁰⁾

잉글랜드의 개혁자들은 무지와 미신 가운데 있던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개혁운동의 중심은 교회 정치에 관한 것으로, 교회의 직분이 2개인가 아니면 3개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성공회를 주축으로 한 감독주의 자들은 세 직분론(감독, 장로, 집사)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계급구조에 의한 교회 운영을 고집하였고, 장로교도들은 두 직분론(장로, 집사)에 근거하여 평등과 자율과 연합을 강조하였다.

신약교회에는 장로와 집사라는 두 가지 직분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청교도의 두 직분론은 '종교개혁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위클리프(John Wyclif)에게서 유래한다. 그는 사도 시대에 감독을 의미하는 성직자와 집사의 두 가지 직분만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감독과 장로는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동일한 직분'이라고 하였다.

또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기수였던 캐터베리의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는 그의 저서 기독교인의 제도에서 "비록 사도 시대 이후 목사직의 우열이 생겨났다고 하지만, 신약성경에는 집사(또는 섬기는 자)와 장로(또는 감독)라는 직분 외에 다른 것이 없고, 직분 상호간에 등급(degree)이나 순서(order)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장로정치

절대왕조를 지탱시켜주던 성공회의 감독정치가 청교도 운동에 의해 공격받자, 제임스의 아들 찰스 1세(Charles 1, 1625-1649)는 청교도 박해 정책을 더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이러한 찰스의 종교정책은 잉글랜드인들과 스코틀랜드인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찰스는 의회를 장악하고자 의회 해산령을 내리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오히려 많은 청교도들의 의회진출로 왕과 의회가 대립되며 영국은 내전가운데로 빠져들었다.

의회지도자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전역에서 목사들을 초청하

40) Ibid., 149-151.

여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영국 교회의 신앙고백과 예배와 교회 행정 체제를 로마 천주교회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개혁하므로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교회 정부형태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총회는 의회가 파송한 상원과 하원 의원 각각 15명과 121명의 목사로 구성되어 1643년 7월 1일 개최하여 1649년 2월 22일까지 1163번의 회의를 가졌다. 총회는 오랜 논의 끝에 개혁주의적 장로교도의 신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장년과 자녀교육을 위한 '요리문답서' 그리고 교회 정치 문제를 다룬 '장로교회 정부론'을 만들어내었다.

'장로교회 정부론'은 교직자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이해하였다. 신약시대의 교회 직분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와 같은 임시적인 직분과 목사와 교사와 장로, 집사와 같은 항존적인 직분이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사도 시대이후에 폐지되었으나,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였다.

목사는 기도와 성경연구에 전념하면서 공적인 예배 때에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권면, 설득, 교훈, 견책, 위로하며 말씀을 확신시키고, 교리 문답을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하며, 축복하며,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교인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은 자이며, 교사는 "성경해석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과 반론을 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직분"으로 "박사"라고도 칭하였다. 교사는 목사처럼 교회에서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며, 성경을 해석하고, 학교에서 교수하는 직분을 맡은 자이다.

집사는 구제하는 직분으로,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할 수 없고, 다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필수품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또한 장로는 "교회와 행정에 있어서 목사를 돕는 직분"으로, 당회에 의하여 공천되고, 회중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직분을 행사하게 되었다. 목사가 말씀을 봉사하는 자리면,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으로 종신직이며, 그의 임무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속한 양떼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였다.⁴¹⁾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끝난 후 잉글랜드에서의 장로교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1660년 왕정복고와 함께 왕위에 오른 찰스 2세가 통일령을 내려 감독정치로 회귀하면서 장로교 운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통일령은 모든 목사가 3개월 안에 성공회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41) 오덕교, 160-161.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잉글랜드 장로교회는 점점 약화되어 갔다.

4. 미국교회와 장로정치

미국의 장로교회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역사에 의하면 1607년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Jamestown)에 영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주하였다. 버지니아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영국 성공회 소속이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청교도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도들이었다. 1620년 8월경 필그림스(Pilgrims)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주의 프리마우스 록에 상륙했다. 그들은 영국 성공회로부터 도망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이었다.⁴²⁾ 그들은 오히려 회중정치를 선호하였던 청교도들로서 그들이 미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미미하였다.⁴³⁾

그 이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직접적으로 영국으로부터 이주해왔으며, 네덜란드인들은 1623년 직접 뉴욕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후손들이 '미국 개혁교회'를 만들었다. 그 외 프랑스의 위그노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이 이민해왔다.

가. 프란시스 매케미와 장로교회의 설립⁴⁴⁾

신대륙에서 최초의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은 리처드 덴튼(Richard Denton)이지만, 미국의 장로교회 운동은 '미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매케미(Francis Makemie, 1658-1708)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1683년 미국에 이민하였다. 25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조직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로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비량으로 선교하였다. 매케미는 1706년 12월 26일 뉴저지 주의 후리홀드에서 미국 최초로 필라델피아 노회를 조직하였다. 7명의 목사로 조직되었고, 존 보이드를 목사로 인수하여 8명의 목사가 되었다.

미국 최초의 노회였던 필라델피아 노회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

42) Walter L. Lingle, 세계 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 이야기, 101-102.

43) 오덕교, 장로 교회사, 182.

44) Ibid., 188-190.

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통, 곧 영국 계통의 청교도적인 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아일랜드 계통의 신앙 전통을 가진 장로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점이다. 둘째, 모든 권위의 순서가 총회에서 지역 교회로 내려오는 하향적 조직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성경교리가 가장 잘 함축된 것으로 인정하고 생활과 신앙의 규범으로 삼은 점이다.

그 이후에 미국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의 서명문제로 홍역과 갈등을 치루었고, 신앙부흥운동의 수용 문제와 목사 후보생의 자질과 교육문제로 인하여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져 합동과 분열을 거듭하며 오늘의 미국장로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나. 미국 장로교회의 직제⁴⁵⁾

미국 개혁교회(RCA: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제는 1874년에 개정된 것으로 1부 말씀의 교역자들, 2부 신학교 교수들, 3부 장로들과 집사들, 4부 교회회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목사가 말씀사역과 성례전 집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은 칼빈을 비롯한 다른 개혁교회 전통과 다를 바 가없다. 목사직에 관하여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목사 후보생의 교육수준을 매우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직에 관하여는 주로 신학교 교수에 대해서만 논의하는데, 신학교 교수란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치며 변호하는”직무를 맡은 자들로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고, 성례전을 집행할 수도 있으며, 노회나 총회 등 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장로와 집사의 선출은 그 방법이 유사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선출방법이 보장되어 있다. 첫째는 당회가 배수 공천하여 회중들로 하여금 선출케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당회의 간섭 없이 회중들이 선출하는 것이며, 셋째는 당회가 교회를 대표하여 선출을 끝내고 이를 회중들로부터 인준받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은 목사와 더불어 ‘당회’를 구성하는데, 미국에서는 초기에 개 교회들의 크기가 작았던 관계로 집사들이 장로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한 이래 계속해서 그래왔다. 장로와 집사는 모두가 안수를 받으며,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각 교회의 영적 통치를 맡고”, ‘집사’는 집사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한다. 집사들이 당회원으로 일할 때에는 장로들과 동일한 권한(목사청빙까지

45)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1998), 159-161.

도)을 갖지만, 시찰회에 참석할 대표들을 뽑을 경우에는 장로들과 목사들 중에서만 뽑힌다. 장로와 집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2년으로 하되, 매해 전체의 반수 정도만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동일한 장로나 목사가 다시 선출 될 경우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로교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장로'는 구약에서 가문이나 지파의 대표자이었으며 백성의 원로였다. 또한 회당의 지도자이었다. 신약시대에서 '장로'는 신령한 지도자로서 교회를 맡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무에 해당되었다. 그 이후에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하는 장로'로 나뉘어졌고 이것이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중세의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목사와 장로의 제도가 교황과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의 제도로 대체되어 일인 중심적인 피라미드형의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터 왈도의 장로정치 운동을 시작으로 교회 개혁운동이 머리를 쳐들게 되었고, 이러한 운동들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만인제사장 주의를 통하여, 그리고 존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개혁을 통하여 장로정치는 꽃피게 되었다. 그러나 장로정치의 실현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에서 많은 장로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의 박해로 인해 피 흘려야만 했다.

그 이후에 장로정치는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으로 번져갔으며 한국의 장로교회는 직접적으로는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았다.

제 3 장

장로교의 목사와 장로의 직무

2장에서 장로교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장로 정치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신약시대와 종교개혁을 거쳐 가면서 하나의 성서적인 교회 정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여기에서는 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목사직에 관한 고찰

목사는 본래의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인간으로나 일반 신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맡은 직책 때문에 일반 신자와 구별된다. 전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⁴⁶⁾

토마스 오덴은 '목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아 교회를 대표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완전한 응답을 하도록 기독교 공동체를 인도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⁴⁷⁾

46)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출판사, 2003), 17.

47) Thomas C. Oden,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7), 116.

1. 성서적 배경에서 보는 목사의 직무

성서에서 '목사'라는 용어는 꼭 한군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용어보다는 다 같은 장로의 일원으로서 치리 장로에 구별되는 설교 장로로 불렀다. 성서에서 목사의 직분을 표시하는 이름을 열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양떼를 보살핀다는 의미에서는 감독(벧전 2:25)이라 부르고, 영적 양식을 나누어 먹이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에서는 목자(렘 3:15; 요10:11; 벧전 5:2)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권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고전12:28; 고후5:20)요, 복음 전도자(엡 4:11)이다.⁴⁸⁾

가. 감독으로서의 개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⁴⁹⁾ 목사는 신약성서에서 감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bishop'(감독)은 'episkopos'를 번역한 용어로 보호, 감독, 검사를 가리키는 희랍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책임적으로 돌보는 것을 말한다.⁵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⁵¹⁾라고 표현한다.

제롬은 교회의 질서에 따른 등급을 감독과 장로, 집사와 일반신자, 그리고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후에 세례를 받으려고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세례지망생 등 5개로 나누었다.⁵²⁾ 감독은 영적인 지도자이며 성직이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 불화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물에게 모든 감독권이 맡겨지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장로들은 물론 신자들은 자기를 위에서 다스리는 감독에게 복종하는 것을 교회의 관습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감독의 기능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요, 하나

48)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17.

49) 행 20:28.

50) Thomas C. Oden, 목회신학, 117-118.

51) 벧전 2:25.

5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문제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1), 132.

님의 법을 세우는 자들이었다. 특히 신약에서 목사의 감독기능은 신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고 예배의 집례와 성찬예식의 집례등 교회 공동체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목사는 감독자로서 신도들에게 언행으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신도들은 목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배우며, 또한 신도들에게 본이 될 때 감독자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

나. 목자로서의 개념

목사는 목자로서의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 목사의 사역은 한 개인에 대한 보살핌과 동시에 전 회중에 대한 보살핌을 포함한다. 목회의 전반적 임무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로 불리고 있다.⁵³⁾ 성서에는 목자로서의 목사의 이미지가 여러모로 나타나 있다. 특히 시편23편의 말씀에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시편23편의 목자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한다.⁵⁴⁾ 첫째, 개개의 양에 대한 관심. 둘째, 쉬게 한다. 셋째, 매일 매일의 필요를 공급함. 넷째, 회복과 격려. 다섯째, 인도와 지도. 여섯째, 교육, 훈련, 훈계. 일곱째, 목표와 동기를 부여. 여덟째, 안전과 보호. 아홉째, 개인적 교제와 사랑의 우정이다.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의 장이라고 부를 만큼 목자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양을 먹이라”(15) “내 양을 치라”(16) “내 양을 먹이라”(17)고 목자의 사명을 강조하고 계신다. 시편 7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내용을 이렇게 묘사한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 하였도다.”⁵⁵⁾

목회는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같이 영혼의 목자인 목사가 양과 같은 신자들을 진리로 가르치며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0: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는 말씀으로 목자로서의 그리스

53) Thomas C. Oden, 목회신학, 273.

54) 이주영, 현대목회학, 18-19.

55) 시 78:70-72.

도 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목자의 자세와 임무는 무엇인가? 첫째,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양들을 그의 품에 안는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를 만큼 양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을 자신의 품에 안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 그 기쁨을 나눈다. 둘째, 목자는 특별히 양들의 앞장을 선다. 이는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혹시나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셋째, 목자는 양떼를 우리에서 이끌어내어 가장 훌륭한 목초지로 안내하여 그들을 먹이며 “출입”을 주관한다.⁵⁶⁾ 넷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몸을 바친다.⁵⁷⁾ 선한 목자는 임시적으로 고용된 일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샅꾼은 위험이 닥칠 때 책임을 지지 않고 달아나 버린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한 존재로 “나는 내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양떼를 돌본다. 다섯째, 목자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매시는 목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한다.

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개념

목사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이다. 복음 전도는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맡겨진 임무이나 초대교회 이후 복음전도는 목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다. 복음의 전파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하신 사명이겠지만 이 일을 위하여 전무 하는 사역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호칭하였다.⁵⁸⁾ 이 명칭은 일곱 집사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부여되었고(행 21:8) 또한 목사이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도록 권면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여되었다(딤후 4:5).⁵⁹⁾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

56) Thomas C. Oden, 목회신학, 117-118.

57) 요 10:17.

58) 이주영, 현대 목회학, 33-34.

59) Thomas C. Oden, 목회신학, 164.

도하며”(막 3:14)라고 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제자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회개의 부름이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첫마디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다.⁶⁰⁾ 베드로의 설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⁶¹⁾고 회개를 외쳤다. 바울도 아레오바고에서 회개(행 17:30)를 외쳤다. 회개란 범죄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첫 단계인 것이다. 구약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부패상을 보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뵤엘로 올라가 정의의 하나님을 선포했다.

둘째는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예수님의 행적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이 글이 너희에게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⁶²⁾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전도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처한 시대적, 사회적 삶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였다. 때때로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였으며 구원과 안식과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2. 교단의 헌법이 규정하는 목사의 직무

한국 기독교장로회 헌법 제4장 목사 제19조 목사의 직무에서는 목사와 예배, 목사의 성례집행, 목사와 치리, 목사의 교육과 심방, 특수 목회 등 5가지를 지정하고 있다.⁶³⁾

가. 예배인도자

목사에게는 노회의 권한으로 목사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있다. 그것은 예배시에 사용할 찬송, 시편, 성경구절의 선택과 목회기도와

60) 막 14; 막1:14-15.

61) 행 2:38.

62) 눅 4:18-21.

6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17-18.

설교 및 축도의 책임이다.⁶⁴⁾

목사는 예배 집례자로 예배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 공동체가 주께 경배하고 고백하며 봉헌의 행위에 참여하도록 돕는 책임을 가진다.

예배라는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는 의미로서 이 예배(worship)라는 용어는 앵글로색슨어의 ‘weorthscipe’에서 유래 했는데 이 용어는 ‘worth’(가치)와 ‘ship’(신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로서 ‘존경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말한다.⁶⁵⁾

존 헉스터블(John Huxtable)은 “기독교에서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대화”라고 말했다.⁶⁶⁾ 루터는 예배의 목적을 “우리 주님 자신이 그의 거룩한 말씀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⁶⁷⁾

목사가 예배공동체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예배를 위하여 목사는 예배의 인도자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설교준비는 물론, 예배순서, 광고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임박한 설교준비는 목사로 하여금 초조하게 하고 자신의 양심 앞에 부끄럽게 만든다. 세상의 적은 일 하나라도 주도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사역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둘째, 목사는 주일날의 사역을 위해 토요일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토요일 저녁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데오도로 가일러(Theodore L. Cuyler)는 “당신이 주일에 맑은 정신으로 성도들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토요일 밤 동안 가능한 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⁶⁸⁾ 이것은 매우 좋은 권고이다.

64) Ibid., 17.

65) 이주영, 현대 목회학, 143.

66)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출판주식회사, 1985), 11.

67) Thomas C. Oden, 목회신학, 186.

68) Theodore L. Cuyler, How to be a Pastor (New York: The Baker & Taylor Co., 1890), 56.

목사는 항상 맑고 즐거운 인상과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셋째, 목사는 예배에 임하기 전 성가대와 함께 기도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목사와 성가대원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 특별히 예배위원으로서의 부르심은 최대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임을 생각하게 하여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목사와 성가대는 제 시간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참석하인원의 다소를 막론하고 규정된 시간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라

나. 설교자

설교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개혁자들은 설교사역이 목사의 가장 일차적인 사명임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목사라는 직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실 된 입”이라는 개혁자들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새 시대의 선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었고(마 1:14-15) 예수님의 교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나, 평야에서나, 배에서나, 성전근처에서나, 시장에서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도들이 파송 받았을 때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예수의 설교와 함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다.⁶⁹⁾ 특히 개혁자들은 목사라는 말을 “신언(神言)에 봉사하는 종”으로 이해했다.

바울은 설교의 필연성을 로마서 10장 11-15절을 통하여 분명히 대변하고 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설교자들은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가르침, 대속적인 죽음, 부활, 성령을 통한 계속적인 임재, 교회의 설립, 재림하셔서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과 땅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케리그마와 디다케 혹은 가르침을 선포했다. 케리그마는 불

69) Thomas C. Oden, 목회신학, 252.

신자를 지향하는 반면 디다케는 신자를 위한 것이었다.

설교는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한다(설교의 복음전도의 차원). 설교는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며 경건과 봉헌과 충성과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됨을 고무하고자 한다(설교의 목회적 차원). 설교는 분명하고 이해될 수 있는 기독교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한다(설교의 교리적 차원). 끝으로 설교는 도덕적 감수성과 자각을 수립하고 행위의 변화를 유도하기를 원한다.(설교의 도덕형성의 차원). 한해의 설교 계획에서 이 모든 요소들은 사려 깊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⁷⁰⁾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선포이다. 목사는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다. 성례 집행자

본 교단 목사는 두 가지 성례전 곧 세례와 성찬을 당회의 결의 또는 노회의 허락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고 새로 세례받은 자들을 지교회에 입적시킬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른 교파, 교회, 교회 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할 수 있다.⁷¹⁾

전통적인 개신교회의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교역의 본질이요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안수 받은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1) 세례

세례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 변함없는 전통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례전이다. 켈빈(Calvin)은 세례란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힘으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다.⁷²⁾

목사의 세례교역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사명에 기초한다. 세례는 오랫동안의

70) Ibid., 254.

7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18.

72) 김문제, 기독교강요, VI: 15-1.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나타난 의식이 아니라 예수의 교역초기부터 존재하였다. 기독교의 세례의 원형은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했는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 질문하고 확실한 대답을 받아야 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 사건인 동시에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2) 성만찬

오스카 쿨만(Oscar Culmann)은 “성만찬을 새 계약의 재다짐” 또는 “그리스도를 다시 뵈고 경험하는 예전”⁷³⁾이라 표현한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주의 만찬은 합당한 성장을 이루도록 양육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의 예전이다.

모든 기독교 목사들은 사도적 전승을 따라서 공동체를 위하여 올바르게 떡을 떼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은 결코 우발적으로 나타난 교역의 부수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부어 나누어 줄 때보다 기독교 교역의 핵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⁷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한 신약의 근거를 담대하게 기술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친히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마 26: 막 14: 눅 22). 그 다락방에서의 성만찬 이후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거의 2천년 동안 언어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73) Oscar Cullmann, Essays on the Lords Supper (Richard: John Knox Press, 1972), 19.

74) Thomas C. Oden, 목회신학, 236.

의 교제(성만찬)를 기념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이때 목사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명백히 이해해야 한다.

라. 교사

“목사는 신도들에게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법도를 교육하고”⁷⁵⁾ 목사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직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숙시켜야 할 교사의 직무이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각자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직책을 열거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직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는 ‘한 가지 직무의 두 가지 사역’으로 이해되며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등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다.⁷⁶⁾

예수께서도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잘 보여준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봉사하게 하시던 중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유언적 지상명령(마 28:19-20)에서도 가르침의 사명을 명령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는 목사에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고 권고한다. 이 가르침의 교역은 “네 부름의 모든 직무”의 일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딤후 4:5). 따라서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교육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으로 목사는 교회학교 교육으로부터 청년 교육, 장년교육, 노년교육, 새 신자 교육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의 청사진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해 가야 한다. 물론 목사 한사람이 교회의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모든 교육행위는 목사의 책임 하에서 일어나야 하고 목사는 성숙한 평신도 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성시키는 일에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18.

76) 이주영, 현대 목회학, 167-168.

마. 목양자

“목사는...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와 슬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여야 한다.”⁷⁷⁾ 목사는 목양자이다. 목양의 직무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의 영육간의 전인적인 문제들을 보살피는 역할이다. 목사가 하는 일 중 심방, 상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기능을 좀더 분석하면 양을 인도(guiding)하고 영혼의 병을 치유(therapy)하며, 어려움 가운데 인간의 신앙생활을 지탱(sustaining)시켜주는 일이다.⁷⁸⁾

(1) 심방

목사는 직책상 아무 때나 성도들을 심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목사의 한 주간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가 심방이다. 주일은 공식예배를 드리지만 주간에 어려운 가정, 환자, 문제 있는 가정과 새로이 등록된 가정들을 심방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치유하며, 또한 신령한 생활을 향상시킨다. 목사는 교회의 모든 출석 교인들과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심방하여(전통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개인 면담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⁷⁹⁾

목사가 심방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긴다. 반면 사생활 노흔을 꺼리는 계층에서는 심방을 거부하는 일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심방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 검증할 수 있다. 목사는 양들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심방을 통해 알 수 있다.⁸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찾아 오사 구원하셨듯이(눅 1:68) 목사는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섬기는 지역을 방문하고 심방해야 한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셨듯이 목사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마 18:12) 참된 심방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는 베드

77)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18.

78)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8), 28.

79) Thomas C. Oden, 목회신학, 325.

80) William Evans, How to Prepare Sermons?, (Chicago: Moody Press, 1978), 24.

로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주셨으며(마 8:14-15),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기도 하셨다(요 11:17-44).

그러나 심방의 실제에는 몇 가지 주의 할 점이 있다. 교인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일에는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며 특별히 곤란한 일에 대해 설교시 예화로 인용하는 일은 극히 주의할 일이다. 고통 중에 있는 자나 돌봄이 부족한 사람들이 심방의 우선이 되어야 하며 대화는 부드러운 돌봄의 어조가 좋고, 적절한 시간 머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심방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상담

목사는 상담자이다. 목사는 영적 생활의 지도자인 까닭에 교인들의 생활에 문제가 되는 모든 사생활이나 공생활에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심방이 목사가 적극적 주체라고 한다면, 상담은 교인이 적극적 주체가 된다. 상담은 교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사는 교인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가정이나 개인의 어려운 문제들을 목사에게 가져와 조언 받기를 원한다. 게리 콜린스(Gray R. Collins)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당신이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 남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누구에게 가느냐?'하는 질문에 전문 상담가나 진료소를 찾는 사람이 28퍼센트, 가족 또는 주치의가 29퍼센트, 그리고 목사는 42퍼센트라는 결과가 나왔다.

좋은 상담의 실제를 위해서는 교회 내에 편안한 상담실을 개설하고 목사와의 상담시간을 주보에 광고하여 누구든지 상담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며, 긴급한 상담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현대교회들은 담임 목사 외에 전문적인 상담자격을 가진 교역자를 채용하여 교인들을 상담토록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평신도 중 상담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훈련시켜 상담요원으로 봉사케 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혼을 돌보는 상담은 목사가 담당할 수 있지만 정신이상, 약물중독, 심각한 부부 갈등, 청소년 상담, 건강상담, 직장 상담 등 전문화된 상담요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상담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물론 목사에게 상담은 중요한 사명이고 직무이지만, 여타 다른 목회사역으로 시간에 쫓기는 목회자로서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안배해야 할 지혜도 필요하다.

바. 치리자

“목사는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성서의 교훈대로 교회를 치리 한다.”⁸¹⁾

목사는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배척을 받으나 행정을 잘 못하면 강단에 설 수 없다”⁸²⁾란 말은 단적으로 교회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예전과 달리 교회는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많은 교회의 증형화, 대형화 추세 속에서 목회 행정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도 450명의 제직이 있는데 매년 이들을 적절한 은사대로 교회 각 부서나 위원회의 봉사의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인사행정에 대한 식견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 행정은 교회 전체를 동원해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모든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⁸³⁾

한국교회 안에는 목사가 제사장적 기능이나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신령해 보이지만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신령하지 못하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 이것은 신학훈련과정에서 목회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바로 배우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기에 목사는 설교자, 교사, 예배인도자, 상담자만이 아니라 조직체로서 교회를 이해하고 관리 경영할 줄 아는 행정가로서의 직무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관리할 분야는 당회 행정과 인사 행정, 그리고 재정 행정이다.

81)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18.

82) 박동섭, 새 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05.

83) 이주영, 현대 목회학, 232.

(1) 당회 행정

장로교회를 다스리는 정치기구는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이다. 이를 행정 또는 사법기구라고도 한다. 당회란 지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를 말한다.⁸⁴⁾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며 당회는 원칙적으로 사회하는 목사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 당회의 임무는 인사, 재정, 각종예식, 권징, 교회 관리 등 중요사항을 관리한다. 조직 교회의 담임목사는 당회의 회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고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한다.

당회를 잘 운영할 때 교회는 평안하고 불만이 없어진다. 그러나 당회에서 사사건건 목사와 장로간에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이는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이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목사는 당회를 설득과 신뢰로 교회 법안에서 잘 운영해 나갈 책임이 있다.

(2) 인사행정

교회의 인사행정은 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교회 봉사과 교회 사업에 참여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인사관리의 업무로서 가장 어려운 행정의 하나이다.⁸⁵⁾ 인사행정에서 책임감이 희박하고 근시안적인 인물이 선택되면 교회의 발전과 계획은 지연되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굳건한 신앙 위에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통솔력 있는 인물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특별히 항존직인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도 목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목사의 목회에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종종 교회에서 일할 일꾼이 없다고 아직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제직으로 세움으로 그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된다.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는 초대교회는 과부 구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⁸⁶⁾을 택함으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처럼

84)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서울: 기독교문사, 1986), 164.

85) 김병원, 목회학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207.

86) 행 6:3.

럼 좋은 일군들을 발굴하여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발전과 성숙에 큰 유익을 주는 일이다.

(3) 재정행정

교회는 영적인 집단인 동시에 사회적인 공동체이다. 교회의 임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로 물질을 앞세우는 것은 문제지만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교회가 효과적으로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드린 헌금을 잘 관리하고 이를 지혜롭게 집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 물질의 청지기로서 교인들의 의무를 강조하되 드려진 헌금이 합당하게 쓰이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정성스럽게 드려진 재정이 합당하게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물질을 드린 교인들의 정성에 대한 배신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일이다. 따라서 목사는 재정의 계수와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이며 신뢰할만한 재정관리자를 선발하여 일하게 함과 동시에 재정이 바르게 관리되고 집행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교회재정은 당회장의 결재 하에 집행되어야 한다. 당회장의 결재 없이 재정 담당자가 임의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회장은 교회 재정의 결산과 예산을 의결하는 공동의회 의장이므로 교회 재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⁸⁷⁾

제 2 절 장로직에 관한 고찰

목사와 장로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장로의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점이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장로가 할 일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장로로 임직하여서 주일 대예배시 순번대로 대표기도 한번만 하고 월 1회 당회 한번 참석해도 장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평신도나 집사보다도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장로가 있다면 이는 참으로

87)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184.

안타까운 일이다. 장로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따르는 사역을 바로 아는 것이 훌륭한 장로의 사명을 다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1. 칼빈이 이해하는 장로직

교회조직에서 칼빈의 특기할 만한 개혁은 로마교회에서 단지 성례집행자로 변질되어 버린 복음 증거자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치리자에서 시종자의 위치로 전락된 장로 직분의 위치와 기능을 회복시켜 놓은 데 있다. 장로직에 관한 칼빈의 분명한 견해는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이후 스트라스부르그의 생활에서 다시 제네바로 초청을 받아 돌아온 1541년경에야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와서 곧 교회법을 초안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았다.⁸⁸⁾

여기서 밝힌 장로직의 의무는 “각인의 생활을 보살피고 범죄한 자들과 방종한 생활을 하는 자를 책망하며 필요한 경우에 친절히 경계하는 것”이었다.⁸⁹⁾ 또한 칼빈은 신약성서의 장로직을 구분하여 목사는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장로라 하였고, 치리장로는 목사의 동역 치리자(co-corrector)로서 하나님께서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신 교회제도에 속하는 직분이라고 하였다.⁹⁰⁾

칼빈의 장로교 정치제도에 있어서 장로는 시의 행정관리직을 자기들의 전문직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교회 목사의 동역 치리자로서 봉사하였으므로 오늘의 장로교의 장로 성격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그들이 개교회 교인들의 자유로운 선출에 의해 피택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장로와 다른 점이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장로제도는 안으로는 신약성서의 장로직의 일부의 회복이면서도 신약성서 그대로는 아니었고, 시 정부와 교회의 연합체제의 형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제네바가 칼빈의 교권정치인 어떤 독단정치로는 볼 수 없고, 장로만의 전단정치도 아니었다. 굳이 표현한다면 안으로는 목사와 장로와 동역 직제이고 밖으로는 교회와 시정의 연합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⁹¹⁾

88) 오덕교, 장로교회사, 73.

89) 손병호, 장로교회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174.

90) 한경직 외, 장로시무 핸드북 (서울: 엠마오, 1996), 53.

91) Ibid., 57.

2. 교단의 헌법이 규정하는 장로의 직무

한국 기독교장로회 헌법 제5장 장로 제29조는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장로는 교회의 책임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⁹²⁾

가. 교인들의 대표

"장로는 교회의 책임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회 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대의 정치제도이다.⁹³⁾ 담임목사의 치리권이 교인들과 노회로부터 이중적으로 위임받았다면 장로는 교인들의 위임에 의거 치리권이 발생한다.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인 반면에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다. 기장 헌법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에서 2항과 3항은 기록하고 있다.

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출한다. 3.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 장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⁹⁴⁾

그러나 장로들이 '교인들의 대표'란 표현은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다. 물론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와의 영역의 한계를 구분 짓는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늘 위험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자칫 잘못하면 목사는 손님

92)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23.

93)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4기 장로지도자과정 핸드북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2002), 58.

94)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24.

이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이교회의 주인이라는 텃새의식을 가질 때 오류가 발생한다. 또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들의 이익을 목사 앞에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위험한 해석이다.

나. 치리자

“장로는...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로마서 12장 8절에도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했다. 칼빈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다스리는 자’를 교회의 장로로 해석했다. 칼빈은 여기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또는 ‘치리하는 장로’를 구별했으며 이와 같은 정신이 장로교회 헌법의 정신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다.⁹⁵⁾

장로는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된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이며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치리를 책벌과 관계되는 징계권한과 연관시켜 설명하지만 성경에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교인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책벌과 징계도 포함된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은 사도들을 대신하여 교회를 돌보았다. 사도들이 한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세에서는 장로직이 사제들에 의해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였으나 종교개혁 후 다시 장로직이 교회의 직분으로 회복되었다. 현대교회에서 치리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장로들도 자신들의 치리하는 권위가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벧전 5:3).⁹⁶⁾

95)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4기 장로지도자과정 핸드북, 29.

96) Ibid.

다. 목회의 협력자

“장로는... 목사와 함께...”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하는 것으로 협력의 주체는 말씀증거의 직무를 전담 수행하는 목사이고, 장로는 협력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장로의 협력 여하가 교역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므로 장로제도는 결코 목사와 대결하거나 투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섬기기 위한 협력의 제도이다.⁹⁷⁾

장로와 목사에게 동등하게 처리권이 주어지는 것은 어느 일방의 독주를 막고 상호 협력과 견제, 조화를 통해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룩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⁹⁸⁾

모세는 자기를 도와줄 재덕을 겸비한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 자신을 돕도록 했다. 이들은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종합해보면 모세를 도와 협력하는 자로서의 장로라고 할 수 있다. 그 일의 하나는 치리와 재판에 관한 일이요, 다른 하나는 제사와 종교에 협조하는 일이었다.⁹⁹⁾ 이들의 직무는 어디까지나 종속적이었지 독립적으로 행사된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모세시대와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장로들은 정치와 종교의 협력자로서 직무를 감당했다.

초대교회에서도 장로는 협력자였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장로의 협력을 의미한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사도들은 장로들과 함께 상의했다. 장로는 사도들이 중심이 된 사도교회의 협력자였다.¹⁰⁰⁾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믿어야 한다. 장로는 구약시대나 사도시대, 개혁시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업적이거나 전문적일 필요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사도적 임무를 계승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자이나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한 협력자요 동역자로서 교인들로부터 선택되어진 것이다.

97) 임택진, 장로회 정치해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36.

98)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4기 장로지도자과정 핸드북, 59.

99) 출 18:13-27; 민 11:16-17.

100) 손병호, 장로교회사, 74.

라. 위로자

“장로는...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장로는 위로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즉 교인 중에 고난당하는 자를 심방하고 말씀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 흔히 심방은 교역자가 하는 일이지 장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인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서는 양 무리를 잘 다스리거나 교리의 오해나 도덕상의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

장로는 부모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보살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장로는 교인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때로 장로들은 교인들의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심방하고 상담하며 위로 해주어야 한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자유인도 되고, 종도 되고, 약자도 되고, 강자도 되었다(고전 9:19-23). 장로는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잘 인도하기 위해 교인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¹⁰¹⁾

특별히 헌법이 강조하는 장로의 직무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고난 당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심방하여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로는 병자와 슬픔 당한 자를 우선적으로 돌보고 위로할 책임이 있다. 그러기에 장로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빌 2:5-8) 장로는 교회의 치리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의 중대사안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낮은 자리에 있는 교인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 권면자

“장로는...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101) 임택진, 장로학 (서울: 소망사, 2001), 107-108.

장로에게는 권면자의 직무가 있다.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선도해야할 책임이 있다. 교인들 중에는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의 모임이나 성경공부에 참석하거나 불건전한 기독교 도서를 읽음으로써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같은 구역원이나 신도회의 회원들에게 여기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는 사례도 있다. 이장림의 거짓 총말론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때도 많은 건전한 교단의 교인들이 여기에 휩쓸려서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예도 있었다.

장로들은 교인의 대표임과 동시에 교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 또 장로는 교인의 도덕상 부패를 막아야할 직무도 있다. 교인의 도덕적 부패란 대개 이성 교제에서 오는 부패, 금전거래나 교회내의 각종 계모임으로 인해 생기는 부패, 파벌이나 파당관계에서 오는 부패를 선도하고 경계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며”(딤후 5:2)라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깨끗이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인은 다 같은 형제요, 한 지체이므로 의남매나 수양남매의 관계를 가지거나, 교인간에 의부모 의형제 맺는 일도 미리 살펴서 금하도록 해야 한다.¹⁰²⁾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치며, 도덕상의 부패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로 스스로가 먼저 신령해야 하며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장로가 지도력이 없으면 무능해서 교인들의 잘못에 끌려가기 쉽고, 장로가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교인들을 도리어 그릇 인도하기가 쉽다. 또 장로는 교인 중에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 부패를 막기 위해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당회가 그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⁰³⁾

여기에서는 ‘장로교의 목사와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목사직과 장로직에 관하여 성서적 배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는 뚜렷한 직무의 차이가 있지만, 치리자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목사는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목사와 당회를 주관하는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해

102) Ibid., 109.

103) 임택진, 110.

야 한다. 반면 장로는 목회의 협력자라는 귀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제 4 장

목사와 장로의 갈등

목회와 신학이 1989년 전국의 장로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퍼센트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¹⁰⁴⁾ 물론 그 가운데는 과거에 빈번하게 혹은 한두 번 갈등을 겪은 이들도 있고 늘 갈등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 장로의 응답이 그렇다면 대부분의 목회자도 장로와의 갈등을 겪으며 목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월간목회 1999년 9월호에 실린 김정복의 설문 연구조사에 의하면 목사가 장로에게 받은 갈등이 '전혀 없다'가 20.4퍼센트이며, '갈등이 있다'는 69.9퍼센트이다. 장로의 경우 '목사와 갈등문제가 없다'가 14.2퍼센트이며, 81.4퍼센트가 '갈등이 있다'고 응답했다.¹⁰⁵⁾

10년의 기간을 두고 두 설문조사의 경우 단순수치로만 비교한다면 장로들이 목사에게 대해 가지는 갈등은 70퍼센트에서 81.4퍼센트로 더 극심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해야 할 목회 현장이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일이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일뿐 아니라 많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갈등,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서 온 갈등, 그리고 외국장로교회의 경우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04) 송현옥, "장로는 협력자이길 원한다", 목회와 신학, 1989년 12월호, 95.

105) 김정복, "목사 장로의 갈등 그 문제와 해결(1)", 월간 목회, 1999년 9월호, 84.

제 1 절 한국의 목사와 장로의 사역의 갈등

교회사적으로 보면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협조와 봉사의 관계였다. 개척교회 시절 장도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받들고 섬기다가 스스로의 한계성을 느끼고 목사를 청빙 하게 되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섬겨왔던 목사와 장로가 긴장 관계 내지는 알력과 갈등의 관계로까지 발전해간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¹⁰⁶⁾

교회현장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로만 야기되는 경우는 흔치않다. 양자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목사직에서 오는 오해와 장로직에서 오는 오해가 무엇인지 정리해 본 뒤에, 일반적으로 목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보겠다.

1. 목사직의 오해가 가져오는 결과

목사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책이 목사직에 해당된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그 제사의식에 종사하는 성직자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오늘의 목사들은 예배의식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양무리들을 치리하며, 인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직의 유래는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에서 찾을 수 있다.¹⁰⁷⁾

신약시대에서 목사직의 유래는 사도직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친히 12제자를 선별하여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마 28:19-20)하시고 또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요 21:15-17)고 분부하시고 보내심으로 시작되었다.

목사직의 유래를 구약과 신약의 전통 속에서 찾는 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에

106) 한경직외, 장로시무 핸드북, 301.

107) 임택진, 장로회 정치해설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2), 91.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른다. 이러한 목사직의 오해에서 사실 교회내의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히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막 10:45)¹⁰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목회자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가. 독선적인 목회

1989년 12월 목회와 신학에 게재된 송현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장로들이 목회자와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항목은 직분임명, 재정 등과 관련된 '교회 행정의 처리문제'(47퍼센트)였다.¹⁰⁹⁾ 이것은 목회자들이 사전에 장로와 의논 없이 처리함으로 장로의 불만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자가 2003년 9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시 총대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목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독단적일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44.4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목회현장에서 목회자는 결정해야할 많은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된다. 그때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서두름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정도는 '내가 제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또 종종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하여 진행하였던 일들이 장로에 의해 견제 받는 경우들도 목회현장에서 경험될 수 있다.

이러한 독선적인 목회형태는 목회자 자신의 타고난 성품에서 연유될 수도 있고 동시에 장로회 정치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목사를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계층으로 이해하는 데서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는 감독주의에로의 회귀가 진정한 목회의 조건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교황의 독선과 독재로부터 개혁교회는 수많은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잃어가면서 까지 진정한 대의 정치인 장로교를 이 땅에 세워놓았다.

목회자는 독선적인 목회를 경계해야 한다. 성경의 장로정치는 목회자와 장로를

108)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5).

109) 송현옥, 목회와 신학, 95.

파트너로 묶어주었다. 따라서 목사는 장로를 목회의 귀중한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논의하며 장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목회적 자세가 필요하다.

나. 목회자의 권위주의적 태도

목회자에게는 많은 이름이 붙는다. 하나님의 종(딤후 1:1), 하나님의 사람(딤후 6:11), 하나님의 사자, 감독자(행 20:28), 주의 종 등의 많은 칭호들은 목회자를 일반 교인들과 구별시키는 용어로 쓰인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 노회가 안수 임직한 교회의 최고 중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교인들과 구별된다. 또 목사에게는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가장 신성하고 존엄하며, 가장 전문가적인 책임을 지닌다.¹¹⁰⁾

목회자에게는 교훈권과 성례집행권, 축복권, 치리권 등이 있다. 이 모든 직무는 사도직에서 기인된 직무이다. 문제는 일부 목회자중에는 이 구별된 직무를 앞세워 자신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함으로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물론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을 수행함에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목사도 본래의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간상으로 보든지 일반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높여주며 위해줄 때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여 권위주의적 태도로 마치 교인들 위에 군림하듯이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증거 하지만, 강단 아래로 내려오면 상처 입은 양들을 돌보고 싸매어 주는 사랑의 목자요(눅 10:30-37), 겸손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 그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교인들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기는 하셨지만(마 7:28-29)¹¹¹⁾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110) 임택진, 장로회 정치해설, 93.

11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 7:28-29).

대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눅 7:34).¹¹²⁾

다. 목회직의 세습화가 가져온 교회의 사유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목회자에게는 이 거룩한 교회를 돌보고 섬길 사명이 주어졌다. 그런데 돌보고 섬겨야 할 청지기가 스스로 주인처럼 행세할 때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요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실망과 갈등의 요인이 되곤 한다.

교회의 세습은 마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연상케 한다.¹¹³⁾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에도 자기들의 것을 만들고자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열심히 섬겨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사유화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마치 기업주가 자신의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제가 한국사회와 교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세습의 부작용으로 인해 교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난투장이 되어버리고 갈등이 첨예화되어 서로를 정죄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어둡고 검은 욕망을 드러내어 세습화를 추진해나갈 때 이를 반대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담임목사는 거리감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할 구실을 찾게 된다. 교회의 안정적 계승이라는 수많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 세습은 사회로부터 교회의 사유화라고 지탄받고 교회 내 지도자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낳는 일들이 되고 있다.

2. 장로직의 오해가 가져오는 결과

1887년 새문안 교회에서 장로 장립이 있는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장로는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에 크나큰 기여와 공적을 남겼음을 부인할 수 없

112)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눅 7:34).

113) 마 21:33-41.

다.¹¹⁴⁾더더욱 초창기의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장로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왔다.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를 드릴 재정이 없을 때는 장로가 남몰래 헌금을 드려 교회재정을 충당할 정도로 희생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교회의 장로직이 섬김과 종의 직분보다는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목사를 고용인처럼 여기는 권력화의 현상, 주인 의식, 그리고 봉사보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예직화되는 위험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갱신은 목사와 장로의 갱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 교회가 계속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장로상을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가. 장로직의 권력화

섬김의 직분이 권력의 자리로 전락해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예전의 장로직은 서로 안 하려고 사양하는 자리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않다. 음으로 양으로 누구나 장로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도 많다.¹¹⁵⁾ 왜냐하면 장로는 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의 교회의 모든 정책의 결정이나 인사행정, 재정계획과 집행권이 당회에 주어져 있다. 당회는 단지 재정을 감독하고 계획할 뿐 집행은 제직회에 주어진 임무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재정부장(장로) 선에서 재정이 집행된다. 또 재정부장은 본인이 결정하기 곤란한 것은 당회로 미룬다.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말처럼 교회의 힘은 재정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보니 장로직은 교회 안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직분이 되었다.

장로는 한번 임직을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교회를 거의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목사는 고용된 일꾼이요 장로는 주인이라는 의식이 생겨난다. 또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받은 자요,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의식이 주인 의식과 권력화를 부채질한다.

장로직의 권력화를 야기 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장로의 계급의식이다. 집사보다

114) 송현옥, 목회와 신학, 105.

115)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문화사, 1999), 145-146.

는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다는 계급의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시 일반 교인석과는 구별되게 장로석을 따로 두는 교회가 많다.¹¹⁶⁾ 또 교인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주일 예배를 위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없어도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간만 있으면 당회원 실을 따로 만들어 장로들은 주일날에 그 공간에 머물도록 한다. 여기에는 직책상 온종일 교회에 머무는 장로들을 위해 쉬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배려의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교인들과는 구별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장로직의 권력화나 계급화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볼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이 의도했던 모습은 더욱 아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는 계급의식이 강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 진다”(마 23:11-12)고 말씀하셨다. 한국교회의 성숙과 갱신은 장로들이 그 본연의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능할 것이다.

나. 장로직의 명예직화

많은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명예스런 직분으로 생각한다. 교회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명예스런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장로직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한국교회 안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장로직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자리를 잡아왔다. 한번 장로로 임직을 하면 ‘평생’ 장로라는 호칭을 가지고 산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종종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해준다. 그러기에 장로는 상당한 명예직이 될 수밖에 없다.

장로직을 명예직으로 보는 증거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무 장로들 가운데는 주일 예배시 장로석에 앉는 일과, 혹 당회에 참석하는 일 외에 다른 봉사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 장로는 교회 감독이라고 불려진다. ‘양무리를 치는 자’라고도 불려진다(행 20:28). 그렇다면 장로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자기 구역의 가정과 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 오래 전 외

116) 한경직 외, 장로시무 핸드북, 129-131.

지로 떠난 장로들의 이름이 후보에 계속 실려 나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장로를 명예직으로 보고 있는 증거이다.¹¹⁷⁾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 안에 명예직을 세운 일이 없다. 자기 이름을 내고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교회 직분의 본질과 전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봉사가 없는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벌써 상실한 것이다. 장로직은 결코 명예직이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3. 일반적인 목회 현장의 갈등요인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의 잘못된 인식과 힘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첫째는 목회적인 성직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감독정치 또는 교황정치 형태로 가는 것이요, 둘째는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힘이 너무 커져서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요 고용주인 것처럼 처세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¹¹⁸⁾ 그러나 이 모두는 결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도 아니요,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도 거리가 먼 것이다. 목사와 장로가 공히 가질 수 있는 주도권 다툼, 역할의 혼동,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통해서 좀더 성숙한 당회의 모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주도권의 문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우위다툼에 대해 걱정스런 모습으로 교훈 하신 적이 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와 주님이 영광스런 자리에 서실 때 자신들 형제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였다(막 10:35-36). 예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막 10:38)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다(막 10:41). 예수께서는 섬김과 종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셨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

117) 허순길, “한국교회 장로직제, 왜 문제가 되는가”,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58.

118) 이종화, 효과적인 당회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40.

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3-45).

한경직은 주도권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이기에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개척교회시대 또는 교회가 작아서 사회에서 미미한 존재임을 면할 수 없을 때는 목사도 장로도 힘을 합쳐 교회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려니까 주도권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커가고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이 되면 이 교회를 누가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¹¹⁹⁾

물론 목사와 장로는 다같이 처리권을 가지고 있고 다같이 안수 받은 직분이다. 그러기에 누가 교회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주도권의 갈등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장로정치란 원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목회의 전문가이자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여 교회를 섬겨 가는 것이다.¹²⁰⁾ 목사는 앞에서 끌고 장로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갈 때 장로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나. 역할의 혼동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역할은 늘 혼동을 일으킨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장로가 할 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인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김동호 목사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목사와 장로의 역할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 충돌과 마찰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목사와 장로는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충돌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¹²¹⁾

장로교회 헌법에서도 목사와 장로는 안수를 받고 다같이 처리권을 가지게 함으로 그 권한과 역할이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기 때문

119) 한경직, 장로시무 핸드북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 302.

120)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130.

121) Ibid., 20.

에 교회에서 당회장은 당연직이 아니고 장로도 당회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¹²²⁾

목사와 장로의 역할과 직능의 문제는 어떤 조문적인 구분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함께 섬기는 파트너로서의 인식을 가질 때 역할과 권한의 논쟁은 종식될 수 있다. 장로는 목사가 교회의 대표요, 당회의 의장임을 인식하여 그 역할을 존중해야 하고, 목사는 장로를 목회의 귀중한 동역자로 알아 목회와 행정의 중요한 결정에는 장로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동역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다. 지도자로서의 자질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한다. 한국 교회는 선교 100년이 넘는 긴 역사만 이 아니라 교회의 비약적인 발전과 아울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을 자랑한다.

그러나 동시에 목사나 장로의 자질이 교회나 사회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종종 교회 내 갈등의 원인이나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경직은 목사의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교회를 성실히 돌보지 못하던지, 성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커서 교회발전에 유익이 되지 않고, 교인들이 떠나기를 바라나 불응할 때 목사와 장로의 알력은 깊어진다고 지적한다.¹²³⁾

장로의 경우도 동일하다. 장로가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목사의 목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 또 장로의 인격이나 행실이 일반 교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때 당회는 쉽사리 갈등에 빠진다.

예장 통합측 장로 1000명을 대상으로 304명의 응답자가 보여준 장로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주일을 지킨다' 80.9퍼센트, '못 지킨다' 5.6퍼센트, '가끔 범한다' 13.5퍼센트로 나타나고, '십일조 생활은 온전히 드린다' 23.3퍼센트, '가끔 드린다' 20.8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예배 출석은 '주일 아침, 저녁, 수

122) 이창승, "장로도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월간 목회, 1991년 1월호, 62.

123) 한경직, "바람직한 장로상", 장로시무 핸드북, 305-306.

요일 밤' 71.3퍼센트, '주일 아침과 저녁' 19.2퍼센트, '주일 아침만' 9.5퍼센트로 나타났다.

4.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서 온 갈등

한국은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유교의 영향 하에 있었다. 유교의 특징은 계급주의와 신분주의다. 유교는 모든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어 놓았다. 양반이 상위계층이고 그 밑에 농민과 상민, 천민이 있다. 양반은 어린이 일지라도 농민이나 상민의 어른보다 더 대우를 받았다.

가. 유교의 계급주의

선교사들이 초기 선교과정에서 교회사에 나타나지 않은 영수(橫袖)라는 제도를 수용하였다. 영수는 지교회의 대표격이었으며 사실상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다가 이 '안수 받지 않은 장로'로서의 영수들이 장로들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고 영수들이 대부분 장로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할만한 영향은 영수 제도가 한국 장로 이해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영수란 '우두머리'란 뜻으로 다분히 세속적인 사고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 물론 모든 영수가 이러한 자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한말의 유교적 사회 상황에서 이러한 직명의 채택이 자타에게 미친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¹²⁴⁾

영수들이 장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수의 개념은 장로에게 전이되어 새로운 종교 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성경은 장로를 존경하고(딤후 5:17)¹²⁵⁾,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벧전 5:5)¹²⁶⁾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랑의 표현이지 결코 계급적이거나 신분적 고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유교적 사고방식과 사회구조는 장로를 계급화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상당수의 장로들 자신도 그러한 사회적 구조에 적응하

124) 이정석, "장로직의 세속화", 목회와 신학, 2001년 11월호, 55-56.

125)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126)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 고자세를 취하는 병폐를 초래하였다.¹²⁷⁾

나. 유교의 신분주의¹²⁸⁾

기독교는 인간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의 평등을 가르치지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온 유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인생관에 따라 정치적 입신양명을 추구한다. 그 결과 한국인에게는 신분이 중요하며 직함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마디로 정리하는 묘비에도 직함을 쓴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국인들은 이러한 전통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장로가 되면 이름과 '장로'라는 직함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며, 심지어 시무를 중지한다든지 교회 밖에서도 장로가 호칭된다. 직분이 영원한 정체성이 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더욱이, 장로를 '항존직'으로 보는 장로교 전통과 결합될 때, 이러한 신분화가 정당시된다. 이와 같이 직분과 신분을 혼동하는 상황에서, 장로야말로 평신도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신분으로 생각하여 장로가 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한번 장로가 되면 영원히 그 신분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교적 신분주의는 자연히 섬기려는 겸손한 태도보다는 지배하고 주장하려는 자만한 태도를 가지기 쉽다.

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으로 야기된 교회 분열사례

교회의 갈등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 내에 야기된 문제가 서열이나 계급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될 때 갈등은 밖으로 노출된다. 우리는 이제 유교가 한국에 심어준 그릇된 문화의 영향에서 한국교회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외국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한국교회에서는 큰 문제로 부각되곤 한다.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교회 분열의 사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보다는 유교의 문화가 지배하는 교회 현장 속에서의 목사와 장로의 갈등

127) 이정석, "장로직의 세속화", 56.

128) Ibid., 56-57.

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1) 사례 1

K교회는 지방 중소 도시에 위치한 교회이다. 교회가 위치한 OO시는 인구 5만 명 정도의 도농 복합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K교회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교회이다. 교회는 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지역이 발전해오면서 교회도 조금씩 성장해갔다. 장년 회집 숫자가 230-250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 되어 갔다. K교회는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목회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저 3-6년을 목회 하다가 다른 임지로 떠나곤 하였다. 대개 떠나는 이유는 장로들과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그렇듯이 목사의 힘은 약해지고 장로의 세력이 커지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던 중 타 지역에서 목회 하던 S목사가 K교회의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다. S목사는 거쳐간 다른 목사들과는 달리 열정적이었고 열심인 목회자였다. 설교도 박력이 있고 은혜로 왔다. S목사는 교회가 한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계획들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었다. 새 신자가 들어오고 교회는 활력을 띠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어느 주일 오후예배를 마치고 당회로 모였다. 두 명의 R장로와 N장로가 참석하고 S목사가 참석하였다. 3명이 모여 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재정부장인 R장로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S목사가 당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새로운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S목사는 나름대로 목사가 고유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과 당회의 의논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했지만 R장로는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N장로가 중재하여 넘어가기는 했지만 S목사에게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그 이후에도 종종 R장로는 재정을 비롯하여 모든 목회 전반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나왔다. 부딪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1년이 지났을 때 묘하게도 증도에 서서 중재의 역할을 하던 N장로가 R장로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S목사는 두 명의 장로와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되어야만 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방해하곤 했다.

그 이후부터 교회는 자연스레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장로의 편을 드는 교인들로 갈라지게 되었다. 장로편에서는 목사가 떠나면 해결된다고 S목사가 떠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S목사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무수한 선배 목회자들이 그렇게 떠나곤 했었기 때문이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인심을 잃었고 전도의 길은 막혀버렸다. 싸움에 싫증난 교인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둘 떠나갔다. 250명까지 회집하던 교회는 10년이 넘는 분쟁 끝에 80명으로 흠석이 떨어졌다. 재정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나중에는 서로를 맞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고 급기야 노회가 S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두 장로를 지지하는 파로 분열되어 노회를 따로 모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총회에서 파송한 수습위원의 노력으로 잠시 진정된 듯 보이지만 아직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2) 사례 2¹²⁹⁾

P교회는 80-90명의 장년이 회집하는 역사가 오래된 시골 교회였다.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한 B목사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밤 예배 설교시간에 교인들이 B목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갑자기 강단 우측 장로석에 앉아있던 80세의 T장로(원로장로)가 성경 찬송 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교인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나가 버렸다. 교인들은 T장로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황한 B목사도 서둘러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마쳤다. 마침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오더니 원로장로가 앉아있던 의자를 번쩍 들어 교회당 제일 뒤에다 옮겨놓았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T장로는 평생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으며 교인들은 T장로를 교회의 공로자요 어른으로 모시고 있었다. 이 교회를 거쳐간 어느 교역자도 이 원로장로의 뜻을 거역한 적은 없었다. 그것이 곧 사임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젊은 목사의 설교가 T장로의 귀에 거슬렸던 것이었다. 그

129) 김철동, "장로제도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바람직한 장로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 한신대학교 목회학 박사원, 1998), 165-166.

라서 T장로는 시위 비슷하게 설교 도중에 일어서서 나옴으로 B목사에게 경고를 보내 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교회의 한 청년은 B목사에게 여기에도 지원군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T장로의 의자를 고의적으로 뒤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 사건은 그리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T장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청년의 행동은 B목사가 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계속 트집을 잡으며 교회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번 일은 T장로의 잘못임을 알고 있는 교인들조차 T장로가 교회의 뿌리임과 동시에 종정의 어른이었기에 누구도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B목사가 사과하고 평화롭게 목회하자고 종용할 뿐이었다. 이러한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사명감에 불타던 B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 다른 목회지로 옮겨 가야만 했다.

(3) 사례 3

G교회는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긴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보니 지역에서 지도적인 교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다. 긴 역사를 가진 교회가 대부분 그렇듯이 장로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그 교회에 출석했던 경우들이 다반사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좋게 말하면 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고 주인의식이 있지만, 동시에 터줏대감(텃새의식)의식도 강한 것이다. 그래서 종종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인들과 기존 교인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청빙해 온 목사와 잦은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 G교회에 50대 초반의 D목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D목사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4-5년 단위로 자주 교체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초반부터 호락호락하게 대하지 않았다. 소신을 분명히 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했다. D목사의 이런 남자다움과 박력은 오히려 교인들에게 인기도 얻게 되었고 당회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게 순풍을 만난 듯 잘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문제가 터졌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사 문제로 인해 이사회가 모였고 주임 교사의 처신이 이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특별히 지역의 유지요재력가로서 평가받는 A장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D목사는 원장인 자신이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할 테니 맡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고 오랜 시간 설전을 벌이면서 감정싸움과 권위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사소한 유치원의 문제가 장로와 목사간의 자존심 대결로 발전해 갔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로 D목사와 A장로는 종종 마찰을 빚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D목사와 전체 당회원의 대결양상으로 판도가 바뀌어갔다. 1-2명의 장로가 중도의 자리에서 화해를 시도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1-2명을 제외하고 당회원 6명과 담임목사가 대치되어 예배가 끝나면 당회실에서 고함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때로는 누군가가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교회를 반반으로 나누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년의 집사그룹이 적극적으로 D목사의 편에 섰다. 계속적으로 목사를 떠나게 하는 당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비장한 자세였다. 중년의 집사그룹은 어느 정도 열심과 재력도 갖춘 사람들이고 보니 장로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로가족을 제외하곤 전 교인이 D목사의 편에 가담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D목사의 입장에서는 당회원들과 대치하다 보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당회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었다.

밀고 당기는 싸움과 욕설이 오고가던 지루한 싸움은 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결국 D목사 측에서 교회의 평화와 지역선교를 위해 새로운 교회를 창립하여 나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400여명의 출석교인 중 150여명이 D목사와 함께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따로 예배드리게 됨으로서 표면상 교회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지역에서나 노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교회의 분열은 노회를 두 편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게도 하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의 대립과 갈등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성도들에게 돌아간다. 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대부분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원인이 크다고 하겠다.¹³⁰⁾ 목사와 장로의 갈등은 작은 오해나 실수에서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좀처럼 사과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과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곧 패배요 체면의 엄청난 손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130)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1 (서울: 신원문화사, 1999), 310-312.

속에 깊이 내린 유교의 그릇된 영향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외국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관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다. 같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 현실에서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손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로교의 원조요 본산지들인 국가들의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 배워야 할 것이다.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한국교회는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1.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는 전형적인 3년 임기제로서 규례서 (Book of Order)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개 교회는 활동 교인 중에서 남녀를 초월하여 장로로 선출하되 모든 연령층을 공평하게 대표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자들 중에 장로로 선출되는 자는 시무기간이 3년 이상 넘어서도 안 되며, 장로는 전체 혹은 부분이든 간에 6년 이상 계속 시무 할 수 없다. 장로가 계속 6년을 봉사한 후에는 적어도 1년 동안 같은 직에 재 선출될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개 교회는 한번 시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 선출 자격이 없는 기간을 설치해 둘 수가 있다.”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의 임기는 임기제 또는 기한 윤번제이다. 장로로 안수 받은 직후부터 3년 동안 시무장로로 활동할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3년간의 시무 봉사가 끝나면 연이어 3년간 더 시무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재시무 투표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재신임을 받으면 3년간 시무장로로 헌신하다가 만기가 되면 앞서 3년과 합쳐서 6년간의 시무기간이 되므로 1년간은 자동적으로 휴무를 해야 한다. 1년간 휴무 후에는 시무장

로로 다시 투표를 받을 권리가 주어질 뿐 시무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개교회의 당회는 언제나 3년의 시무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따라서 매년 전체 시무장로의 1/3 신입 장로로 교체된다.

매년 장로 후보를 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내어놓는 공천위원회의 구성은 당회가 지명한 두 사람의 장로들과 집사회의 지명을 받은 한 사람, 그 밖의 위원에 의해 구성되는데 다른 위원은 교인에 의해 선출되거나 혹은 교회가 지명한 교회의 조직체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목사는 제외된다.

공천위원회의 활동은 1-2월에 공천위원회 구성 및 업무준비에 들어가며, 3월에는 후보자 선정규정 설치, 4-6월은 후보자 발굴 및 명단작성, 9월은 후보자 최종 선정, 10월은 후보자 접촉, 11월은 최종 보고서 작성 및 공동의회에 제출하는 일을 진행한다.¹³¹⁾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 임기제'의 장점은 첫째,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교회 최고 행정 기관인 당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둘째, 전 교인들에게 나도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각 개인의 신앙생활 발전에 기여한다. 세 번째, 장로 임기제도의 장점은 목사가 목회하기가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임기제 장로제도 하에서는 종신제 장로제도하에서보다 장로들의 숫자적 횡포가 덜하다. 왜냐하면 주어진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재시무 투표를 받을 때를 대비하여 너무 모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로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줌으로써 목사가 좀더 소신껏 목회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종신직 장로제도하에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하등의 장애물이 없기에 인간적인 아집과 횡포로 목사 위에 군림하며 교회의 재정이나 인사 등의 실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임기제 장로제도하에서는 무한정의 권력행사가 차단되었기에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가 하면 장로임기제의 단점도 있다. 첫째는, 장로를 성서가 말하는 신앙의 모범 된 자요, 섬김과 거룩함의 존재로 보지 않고 순번 따라 직분을 받아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 정도로 보게 되는 점이다. 둘째는, 장로 선출에 대한 과정에 많은 시간이 요구됨으로 어느 정도는 소모적인 요인이 있는 점이다.¹³²⁾

131) Ibid., 80-81.

132) 이흥제, "세계 각국의 장로제도의 운영양태와 장단점을 본다", 목회와 신학, 통권

2. 스코틀랜드 교회¹³³⁾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세계 장로교회의 발상지이다. 스코틀랜드 개혁가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교회를 장로제 교회로 만드는데 그 기초를 닦아놓았고 다음은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이 제네바에서 공부를 마치고 1574년 돌아와 오늘날 장로교회의 뼈대를 세워놓았다. 한국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스코틀랜드 교회는 대형교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교구제 교회이기에 이사를 가면 그 지역의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또 한가지는 신학생이나 신학을 마친 교역자들이 노회의 허락 없이는 자의대로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

장로선출은 당회에서 필요한 장로의 수를 정하고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당회에서 선정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2주 전에 공포한다. 입후보자는 교인의 수가 많을 경우 많이 선정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필요한 수만을 당회가 심사숙고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공동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교인의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직접 공동의회에서 직선하는 경우도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장로를 세우지 아니한다. 가령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따로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교구제하에서 장로도 이사를 가면 지역의 교회에 출석한다. 당회에서 장로와 목사는 동등한 권한과 발언권을 가진다. 동시에 장로는 교회를 돌아보는데 전적으로 헌신한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우리와 같은 전도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봉사는 전적으로 장로와 집사들이 한다. 장로 임직은 안수해서 세운다. 또 장로는 종신직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장로로 임직되면 평생 그 직무를 다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의 현행 장로 종신제도와 동일하다. 상회 관계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들이 조를 편성하여 누구나 골고루 노회와 총회에 참석한다. 순번으로 상회에 참석하기에 교권주의적 요소를 구조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65호, 84-86.

133) 홍치모, "장로직분은 종신직",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88-90.

3. 화란 개혁교회¹³⁴⁾

화란 개혁교회는 역사적으로 제네바의 존 칼빈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란 개혁교회는 칼빈과 함께 일했던 존 낙스에 의해 발전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직접적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화란 개혁교회는 교리나 기본적인 신학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교회제도나 예배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개혁교회에는 서리 집사나 권사 제도가 없다. 또한 성가대가 없다든지 예배시에 시편찬송을 부른다든지 하는 것도 눈에 띄는 차이들이다.

화란 개혁교회에는 세 직분이 있는데, 곧 '말씀의 수종자'(설교자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목사를 지칭한다)와 장로와 집사이다(교회헌법 제2조).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위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제3조). 따라서 설교자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 분명히 구별된다.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가 설교하는 것은 생각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설교란 합당한 신학교육을 받고 노회의 시험에 합격하고 청빙을 받은 '말씀의 수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없는 교회이거나 설교자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장로가 강단에 올라가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대신 낭독한다.

화란 개혁교회에서 장로의 주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심방이다. 한국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주로 심방하지만 화란개혁교회에 심방은 일차적으로 장로의 몫이다. 물론 목사도 심방을 하지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고 가능한 한 설교준비와 교리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교회에서 배려한다. 따라서 교인관리는 교회에서 구역을 나누어 각 구역마다 장로 1인과 집사 1인이 배정되어서 구역식구들의 영적 상태와 생활을 살핀다. 장로는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심방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심방한다.

화란 개혁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장로직의 임기제이다. 이 제도는 화란에 개혁교회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그 당시 장로들의 지나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장로는 4년 정도(그 기간은 개교회

134) 변종길, "화란 개혁교회-4년 시무 후 자원해서 쉰다",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91-93.

이 규정에 따라 다르다) 봉사한 뒤 장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면 다시 장로로 피택될 수 있다. 투표방법은 먼저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2배수 공천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투표로 선택하도록 한다. 이 투표에서 당선되면 다시 장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사이의 1년 동안은 휴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로직에서 물러나서 평신도로 지내게 된다.

4. 스위스 개혁교회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로서 쾰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 개혁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스위스의 인구 가운데 약 56퍼센트가 개혁교회에 속해있고 41퍼센트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있는데 이 두 교회가 공히 국가교회이다. 국가 교회들은 정부가 교회세금을 교회의 회원으로부터 대신 징수하여 교회에 환원해주는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모든 교회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동일한 교구를 형성하고 있다.

스위스 개혁교회의 원래 명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된 교회’(Die nach Gottes Wort reformierte Kirche)이다. 개혁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직과 평신도직을 구분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기치인 만인 제사장론에 의거하여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성직자라는 인식을 중히 여긴다. 단지 ‘성직’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 말씀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은 목사만의 권한이며 임무이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의 질서와 권징, 그리고 교회운영 전반의 문제를 혼자서 담당할 수 없기에 이를 위해 한국의 당회와 같은 ‘평의회’를 운영한다.¹³⁵⁾

평의회를 구성하는 평의원은 18세 이상 된 남녀신자 누구나 교회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평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일회에 한해서 재임할 수 있다. 평의원 후보자는 평의회에서 결정하며 선출은 18세 이상 된 교인 전체가 한다. 단 제네바의 개혁교회에서는 평의회가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평의회에 속하지 않은 신자들로 구성되는 선거위원회와 목사가 함께 결정한다. 목사 외에는 그 어떤 교회 직분자를 위한 안수예식은 행하지 않는다. 평의원으로 피택된 사람들은 주일 공중예배 때 정식 임명되

135) 유광웅, “스위스 개혁교회-4년 임기, 재임 가능”,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94-95.

며, 그 명단은 교회 주간신문에 공고되고 노회와 행정기관(동회, 궁청)에 통보된다.

목사는 교회를 담임하는 동안 항상 교회 평의회(의)의 일원으로 머문다. 그는 평의회 의 의장으로 선임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상례는 아니다. 개혁교회의 평의원들은 목사와 교회 전임직원들, 그리고 교회 각 활동을 위한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간다. 목회자의 대한 생활비 책정은 평의회(의)의 소관이 아니다. 노회 본부가 목사와 집사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고 있으며,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그 급여액은 평준화되어 있다. 평의회(의)는 교회의 예배가 올바르게 행해지도록 감독하며 세례, 견진례(입교식), 장례 등 각종행사의 결정, 교회 공간의 사용 인허, 교회 전입과 전출 및 탈퇴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목사의 직책은 개혁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목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제도로부터 자유하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일뿐이다.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평의원들은 이러한 목사직의 역설적 역동성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목사 곁에 서서 그를 지켜주며 그를 향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해주고 옹호한다. 평의회(의)는 만일 목사가 목회에 소극적이거나 나태할 경우에는 덕스러운 방법으로 자극을 주며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¹³⁶⁾

우리는 지금까지 제4장에서 한국 장로교의 목사와 장로의 갈등을 살펴보면서 목사와 장로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느 한편으로만 책임을 묻자는 의도는 아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목사와 장로 양편에 다 책임이 있을 것이다. 목사와 장로의 대립적인 구조와 적대적인 관계는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도 원인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외국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라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음도 고찰해보았다. 이제 5장에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요인들이 갈등의 원인으로 존재하는지 좀더 구체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136) Ibid., 96-97.

제 5 장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목사와 장로관계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드러난 현상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측으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사실에 접근한 분석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먼저 설문조사방법과 설문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본 뒤에 설문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다.

제 1 절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

본 절에서는 설문 측정도구를 소개한 뒤에 응답자의 배경 분석과 아울러 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 통계와 분석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1. 측정도구

본 논문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88회 총회참석 총대 (목사 342명, 장로 342명)로 정하고 총대 목사 123명, 총대 장로 142명 등 모두 265명을 대상으로 총회현장(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49 분당한신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회수기간은 2003년 9월 16-19일까지였다. 설문 문항은 모두 18개로 목사와 장로의 배경에 대한 문항 8개, 목사 장로의 사역의 우선순위와 목사 장로 임기제에 관한 문항 3개, 목사와 장로의 사역 갈등에 대한 문항 7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응답자의 배경분석

가. 연령별 분포

<표 1> 연령별 분포(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장로	전체
1	30세 이하	0(0)	0(0)	0(0)
2	31-40세	9(7.3)	0(0)	9(3.39)
3	41-50세	59(48)	7(4.93)	66(24.90)
4	51-60세	22(17.9)	23(16.2)	45(16.98)
5	61세 이상	33(26.8)	110(77.46)	143(53.96)
6	무응답	0(0)	2(1.41)	2(1.41)
합계		123(100)	142(100)	265(100)

응답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목사의 경우 41-50세가 48퍼센트, 61세 이상이 26.8퍼센트, 51-60세가 17.9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장로의 경우 61세 이상이 77.5퍼센트, 51-60세가 16.2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표로 볼 때 목사는 40대가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장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어느 특정한 연령층이 더 많이 설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기보다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 총대 연령비율에서 40대(목사 임직 후 10-20년 경과)는 중진급 목사로서 실제 각 노회에서 총회 총대로 가장 많이 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로의 경우도 대략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개 교회에서 장로 선출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장로 임직 후 10-20년을 경과한 장로들이 노회의 지도적인 장로들로서 총대 선출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학력

응답자들의 학력은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목사는 대학원졸이 67.5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장로는 고졸이 38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전체의 학력에서는 대학원 36퍼센트, 대졸 25퍼센트, 고졸 20.3퍼센트의 순으로 드러났다. 목사의 학력 중 대학원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사의 자격기준을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경우도 이런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응답자의 학력 중 대졸이 19.5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대학원 졸업 이상의 기준이 정해지기 이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표 2> 학력

번호	항목	목사(퍼센트)	장로(퍼센트)	전체
1	국졸	0(0)	4(2.81)	4(1.50)
2	중졸	0(0)	23(16.19)	23(8.67)
3	고졸	0(0)	54(38.02)	54(20.37)
4	대졸	24(19.51)	42(29.57)	66(24.90)
5	대학원졸	83(67.47)	14(9.85)	97(36.60)
6	박사	16(13.00)	3(2.11)	19(7.16)
7	무응답	0(0)	2(1.40)	2(0.75)
합계		123(100)	142(100)	265(100)

다. 직업

<표 3> 장로 응답자의 직업 분포(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장로
1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16(11.26)
2	공무원, 사무관리	14(9.85)
3	사업 및 자영업	56(39.43)
4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28(19.71)
5	전업주부	1(0.70)
6	기타	22(15.49)
7	무응답	5(3.52)
합계		142(100)

응답자의 직업은 목사는 제외하고 장로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사업 및 자영업이 39.4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이 19.7퍼센트로 드러났다.

라.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의 위치

<표 4>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위치(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장로	전체
1	대도시	36(29.26)	30(21.12)	66(24.90)
2	중소도시	33(26.82)	41(28.87)	74(27.92)
3	읍, 면 소재지	35(28.45)	44(30.98)	79(29.81)
4	농, 어촌	18(14.63)	24(16.90)	42(15.84)
5	무응답	1(0.81)	3(2.11)	4(1.50)
	합계	123(100)	142(100)	265(100)

목사는 대도시(29.2퍼센트)가, 장로는 읍 면소재지(30.9퍼센트)가 가장 많았고, 목사 장로의 전체 합산 통계로는 읍, 면 소재지가 29.8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소도시가 27.9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의 비율이 15.8퍼센트로 저조한 것은 한국의 인구분포가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교회의 분포도 시골보다는 읍 면소재지이상 도시 중심으로 개척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읍 면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마.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의 창립횟수

<표 5>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의 창립횟수(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장로	전체
1	5년 이하	3(2.43)	0(0)	3(1.13)
2	6-10년	12(9.75)	3(2.11)	15(5.66)
3	11-20년	18(14.63)	8(5.63)	26(9.81)
4	21-30년	22(17.88)	14(9.86)	36(13.58)
5	31-50년	22(17.88)	29(20.42)	51(19.24)
6	50년 이상	45(36.58)	86(60.56)	131(49.43)
7	무응답	1(0.81)	1(0.7)	2(0.75)
	합계	123(100)	142(100)	265(100)

목사의 36.6퍼센트, 장로의 60.6퍼센트가 5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교회에 출석

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49.4퍼센트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120년이 된 것을 감안할 때 목사 장로 응답자의 절반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 소속된 것도 지극히 자연스런 통계라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195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교단을 구성한 이후에 교회 개척에 소극적이었다는 자료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50년 이상 된 교회들도 10년 단위로 세분화하지 않고 '50년 이상'으로 질문함으로써 60-120년 된 교회들이 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의 장년 주일 출석 분포

<표 6> 응답자가 소속된 교회 장년 주일 출석현황(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장로	전체
1	50명 이하	18(14.6)	11(7.7)	29(10.9)
2	50-100명	43(34.9)	25(17.6)	68(25.7)
3	100-300명	37(30)	55(38.7)	92(34.7)
4	300-700명	14(11.4)	31(21.8)	45(17)
5	700-1000명	5(4)	8(5.6)	13(4.9)
6	1000-2000명	4(3.2)	6(4.2)	10(3.8)
7	2000명 이상	1(0.8)	3(2.1)	4(1.5)
8	무응답	1(0.8)	3(2.1)	4(1.5)
합계		123(100)	142(100)	265(100)

목사는 50-100명이 회집하는 비율이 34.9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장로는 100-300명이 회집하는 비율이 38.7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사. 응답자가 안수(목사) 및 임직(장로)한 이후 경과 연수

목사 응답자중에는 안수 받은 후 11-20년 경과한 분들이 44.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21-30년 된 분들도 27.5퍼센트에 달해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장로 응답자들도 임직 된 후 11-20년 된 분들이 36.6퍼센트로 많았고 그 다음은 21-30년 된 분들이 29.5퍼센트로 많았다. 이는 노회의 총대선거가 주로 안수나 임직 11-20년에 달하는 중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7> 응답자의 안수 및 임직 횟수(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장로	전체
1	5년 이하	5(4.7)	4(2.81)	9(3.39)
2	6-10년	13(10.6)	31(21.83)	44(16.60)
3	11-20년	55(44.8)	52(36.61)	107(40.37)
4	21-30년	39(27.5)	42(29.57)	81(30.56)
5	31년 이상	8(5.6)	9(6.33)	17(6.41)
6	무응답	3(2.43)	4(2.81)	7(2.64)
합계		123(100)	142(100)	265(100)

3. 조사연구를 위한 설문 통계와 분석

앞에서 우리는 응답자의 배경을 분석해보았다. 이제 3항에서는 사역의 우선순위와 임기제에 대한 찬반양론,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에 대해 가진 갈등에 대해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

가. 목사의 사역 중 가장 우선순위

질문: 목사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8> 목사 사역의 우선순위(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장로	전체
1	설교 및 설교준비	74(60.2)	82(57.8)	156(58.9)
2	심방	6(4.8)	14(9.8)	20(7.5)
3	상담	4(3.2)	1(0.7)	5(1.9)
4	교육	5(4.0)	3(1.4)	8(3.0)
5	행정 및 인사관리	2(1.6)	3(2.1)	5(1.9)
6	기도	23(18.7)	31(21.8)	54(20.4)
7	대사회 활동	3(2.4)	2(1.4)	5(1.9)
8	무응답	7(5.7)	6(4.2)	13(4.9)
합계		123(100)	142(100)	265(100)

목사들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설교 및 설교준비(60.2퍼센트)에 두었다. 그 다음 중요한 사역으로 기도(18.7퍼센트), 심방(4.8퍼센트)순이었다. 장로들도 목사 사역의 우선순위를 설교 및 설교준비(57.8퍼센트), 기도(21.8퍼센트), 심방(9.8퍼센트)등을 꼽았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목사와 장로가 보는 관점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개신교 전통에 비추어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목사의 자리는 확고한 것이다. 카톨릭이 성찬과 예전에 많은 비중을 둔 것에 비해 개신교는 예배 중에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목사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만 치중하다보니 기도와 심방 등의 요인들에 소홀해지기 쉽다. 대형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아니더라도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심방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소형교회인 경우는 그 모두가 담임목사의 몫이다. 목사는 양떼들을 돌보고 저들의 영혼을 살피는 목양의 사역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 장로의 사역 중 우선순위

질문: 장로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표 9> 장로의 사역 중 우선순위(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장로	전체
1	심방	8(6.5)	6(4.2)	14(5.3)
2	기도	25(20.3)	51(35.9)	76(28.7)
3	전도	2(1.6)	1(0.7)	3(1.1)
4	치리	3(2.4)	2(1.4)	5(1.9)
5	고난당하는 자 위로	6(4.9)	8(5.6)	14(5.3)
6	목회의 협력자	40(32.5)	36(25.4)	76(28.6)
7	섬김, 봉사	32(26.0)	33(23.2)	65(24.5)
8	무응답	7(5.7)	5(3.5)	12(4.5)
	합계	123(100)	142(100)	265(100)

장로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목사들은 목회의 협력자(32.5퍼센트)를 최우선으로 꼽고 다음으로 섬김과 봉사(26퍼센트), 기도(20.3퍼센트), 심방(6.5퍼센트), 고난당하는 자 위로(4.9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장로들은 자신들의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사역으로 기도(35.9퍼센트)를 꼽았고, 그 다음의 중요한 사역으로 목회의 협력자(25.4퍼센트), 섬김과 봉사(23.2퍼센트), 고난당하는 자 위로(5.6퍼센트), 심방(4.2퍼센트)순으로 나타났다.

장로의 우선순위 사역에 대해 목사와 장로가 보는 시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사는 장로를 목회의 협력자 내지는 동역자로 보고 있는데 비해 장로는 자신들의 사역을 목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다. 목사 장로 임기제에 대한 의견

질문: 6년 동안 사역하고 공동의회에서 다시 재신임을 받는 '목사 장로 임기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 10> 임기제에 대한 목사의 의견(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응답자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1	5년 이하	5(100)	4(80.0)	0(0)	1(20.0)	
2	6-10년	13(100)	12(92.3)	1(7.7)	0(0)	
3	11-20년	55(100)	37(67.2)	16(29.0)	2(3.6)	
4	21-30년	39(100)	24(61.5)	15(38.5)	0(0)	
5	31년 이상	8(100)	6(75.0)	2(25.0)	0(0)	
6	무응답	3(100)				3(100)
	합계	123(100)	83(67.5)	34(27.6)	3(2.4)	

목사 장로 임기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목사의 찬성은 67.5퍼센트임에 비해 장로의 찬성은 68.3퍼센트로 오히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임기제 관철이 장로들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어 주는 통계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목사 안수 6-10년 된 분들이 92.3퍼센트, 5년 이하가 80퍼센트의 찬성을 보인 것은 안수 경력이 짧을수

록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안수 후 21-30년을 경과한 분들이 61.5퍼센트에 머문 것은 중년의 나이에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다.

<표 11> 임기제에 대한 장로의 의견(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응답자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1	5년 이하	4(100)	3(75.0)	0(0)	1(25.0)	
2	6-10년	31(100)	23(74.1)	8(25.9)	0(0)	
3	11-20년	52(100)	37(71.1)	10(19.2)	5(9.6)	
4	21-30년	42(100)	26(61.9)	14(33.3)	2(4.8)	
5	31년 이상	9(100)	8(88.8)	1(11.2)		
6	무응답	4(100)				
	합계	142(100)	97(68.3)	33(23.2)	8(5.6)	4(2.8)

이점에서는 장로들과는 대조된다. 장로들의 경우 임기제에 대해 임직 후 31년 이상 된 분들이 88.8퍼센트로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은퇴를 앞둔 분들의 경우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고려된다. 21-30년의 장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찬성이 제일 저조한 것은 임기제가 시행되어 재 선출을 위한 시무 투표에서 탈락했을 경우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 장로들의 모범적 생활에 대한 설문

질문: 장로들이 기도와 헌금, 봉사생활, 윤리면에서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다고 생각하는가?(목사만 답변)

장로들의 신앙생활 모범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49.6퍼센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니다(40.7퍼센트), 모르겠다(8.9퍼센트)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 목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장로들의 모범적 생활에 대한 응답(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1	그렇다	61(49.6)
2	아니다	50(40.7)
3	모르겠다	11(8.9)
무응답	무응답	1(0.8)
합계		123(100)

마. 장로들과의 갈등에 대한 설문

질문: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 옮길 것을 고려해 본적이 있는가?(목사만 답변)

<표 13> 장로와의 갈등에 대한 응답(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
1	그렇다	56(45.53)
2	아니다	56(45.53)
3	모르겠다	10(8.13)
4	무응답	1(0.81)
합계		123(100)

목사 응답자 123명 중 절반에 이르는 56명(45.5퍼센트)이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 옮길 것을 고려해보았다는 사실은 갈등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서로 협력해야 할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파괴적인 갈등과 긴장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인간관계속에서나 전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갈등이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바.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내용

질문: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가진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일로 갈등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가?(목사만 답변)

<표 14>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목사(퍼센트)
1	재정문제 (예산편성 포함)	39(31.7)
2	인사 행정	21(17.0)
3	선교지원 및 구제	18(14.6)
4	예배 및 설교	11(8.9)
5	목회 계획	28(22.8)
6	무응답	6(4.9)
합계		123(100)

목사들이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갈등은 재정문제(31.7퍼센트)였다. 목회를 위하여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목사들은 종종 좌절을 느낀다. 일부의 장로들은 종종 자신의 돈을 쓰듯이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기도 한다. 목사와의 관계가 나쁜 장로들은 재정문제에 대해 종종 브레이크를 걸곤 한다.

그 다음으로 목사들은 목회계획(22.8퍼센트), 인사행정(17퍼센트), 선교지원 및 구제(14.6퍼센트), 예배 및 설교(8.9퍼센트)등의 순으로 장로들과 갈등을 느낀다. 목회계획은 목사의 고유권한이다. 장로들이 지나치게 목사의 목회를 간섭하고 억제한다면 목사는 소신껏 목회 할 수 없고 목회 현장은 점점 피폐화 되어 갈 수밖에 없다. 장로들은 목회의 전문가는 목사임을 충분히 인식할 때 목사와 장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는 목회계획을 세우기전에 장로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목회현장에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 장로들이 경험하는 목사와의 갈등

질문: 목사와 교회 문제로 갈등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장로만 답변)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에 대해서 장로 응답자 142명 중 절반을 넘는 92명(64.7퍼센트)이 교회 문제로 목사와 갈등을 경험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는 갈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이다. 장로와 목사가 서로에게 느끼는 갈등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장로가 느끼는 것보다 목사가 느끼는 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표 13>에서 장로와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 옮길 것을 고려해본 목사가 45.5퍼센트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그보다 약한 정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리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5> 장로들이 경험하는 목사와의 갈등(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장로
1	그렇다	92(64.78)
2	아니다	40(28.16)
3	모르겠다	4(2.82)
4	무응답	6(4.23)
합계		142(100)

아. 목사의 직무수행에서 나타나는 독단

질문: 목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독단적일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가?(장로만 답변)

<표 16> 목사의 직무수행에서 나타나는 독단

번호	항목	장로(퍼센트)
1	그렇다	63(44.37)
2	아니다	31(21.68)
3	모르겠다	37(25.87)
4	무응답	11(7.74)
합계		142(100)

응답 장로의 44.3퍼센트는 목사가 독단적으로 직무를 처리할 때가 많다고 지적한다.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장로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목사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혼자 처리하지만 반면, 장로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중요한 일에서 장로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섭섭함을 가질 수 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목사의 입장에서는 장로를 배려해야 할 것이고 장로의 입장에서는 목사가 많은 사역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으로 때로 시간적인 긴급성 때문에 의논하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역시 이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에 목사와 장로는 평소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목사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업무, 그리고 장로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선 그어놓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목사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서 어디인지 구분키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로들은 모든 영역이 목사가 장로와 협의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목사와 장로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예고된 일이 될지 모르겠다.

자. 목사의 목회전반과 방향에 대한 만족

질문: 목사의 전체적인 목회와 목회 방향에 만족하는가?(장로만 답변)

<표 17> 목사의 목회전반과 방향에 대한 만족도(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장로
1	그렇다	36(25.35)
2	아니다	23(16.19)
3	모르겠다	76(53.53)
4	무응답	7(4.92)
합계		142(100)

목사의 목회 전반과 방향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은 25.4

퍼센트에 불과하다. '아니다'라는 응답이 16.2퍼센트에 이르고 53.5퍼센트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을 미루어 목사의 목회에 대해 대부분의 장로들이 그리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차. 장로들이 목사에게 가지는 불만

질문: 만약 목사에게 불만이 있다면 주로 어떤 점 때문에 불만인가?(장로만 답변)

<표 18> 장로들이 목사에게 가지는 불만(단위: 명(퍼센트))

번호	항목	장로
1	설교	33(23.2)
2	심방	21(14.8)
3	기도생활	9(6.3)
4	언행일치	42(29.6)
5	인사행정	2(1.4)
6	재정지출	15(10.6)
7	무응답	20(14.1)
합계		142(100)

장로들이 목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언행일치(29.6퍼센트)이다. 목사는 강단에서 많은 말을 한다. 준비된 말도 있고 준비되지 못한 즉흥적인 말도 있다. 장로와 교인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렵고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손해 불지라도 말한 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설교(23.2퍼센트)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교인들이 이사로 인해 지역을 옮길 경우 교회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그 교회 목사의 설교라고 한다. 다음으로 많이 가지는 불만의 요소는 심방(14.8퍼센트), 재정지출(10.6퍼센트), 기도생활(6.3퍼센트) 인사행정(1.4퍼센트) 순이었다. 무응답이 14.1퍼센트에 이

르는 것은 목사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만 이 항목을 대답하라고 표기해놓은 선택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설문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이번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 옮길 것을 고려해 본 목사가 45.5퍼센트에 이를 정도였다.¹³⁷⁾ 이와 같은 현상은 장로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목사와 교회문제로 갈등을 가져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4.8퍼센트의 장로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물론 갈등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갈등이란 말은 '위험'이란 의미와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갈등이 잘못처리 될 때 극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갈등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때 오히려 갈등으로 인하여 변화와 성숙을 겪게 된다.¹³⁸⁾ 제임스 말로리(James Mallory)는 그의 저서 왕과 나 (The King and I)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며, 갈등 없는 삶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충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성장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의 중요한 변화들은 갈등 충돌과 투쟁의 틀 안에서 성취된다.¹³⁹⁾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지도자 그룹인 목사와 장로의 심각한 갈등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목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독단적 일 때가 많다(44.4퍼센트)고 응답했다.¹⁴⁰⁾

목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결단하고 행해야 할 분야도 있지만 장로와 협력해서 해야 할 분야도 많다. 설교, 심방, 상담 등은 목사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당회

137) <표 13> 참조.

138) Randolph Lowry & Richard W. Meyer, 갈등해소와 상담, 전해룡 역 (서울: 두란노, 1996), 29-30.

139) Ibid., 37-38.

140) <표 16> 참조.

에서 다루어야 할 인사나 재정, 새로운 사업의 추진 등은 장로와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¹⁴¹⁾

목사가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갈등은 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 문제(31.7퍼센트)였다. 그 다음으로 목회계획(22.8퍼센트), 인사행정(17.0퍼센트), 선교 지원 및 구제(14.6퍼센트)순이었다.¹⁴²⁾ 거기에 비해 장로들이 목사에게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언행일치(29.6퍼센트)였다. 그리고 설교(23.2퍼센트), 심방(14.8퍼센트), 재정지출(10.6퍼센트)순이었다.

목사와 장로가 느끼는 갈등의 분야에서 공통된 분야는 바로 재정지출이다. 장로들이 느끼는 정도(10.6퍼센트)보다 목사들은 느끼는 정도(31.7퍼센트)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성서의 전통에 따르면 초대교회에서는 재정과 구제의 문제는 주로 집사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¹⁴³⁾ 또한 교단의 헌법에서도 '재정 정책의 수립 및 감독'은 당회의 직무이지만¹⁴⁴⁾,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및 재정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정 감사는 제직회의 직무¹⁴⁵⁾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당회가 재정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정의 집행과 감사까지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말 그대로 당회가 전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동시에 당회의 권한은 장로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당회장인 목사가 당회원인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당회가 결정한 재정으로 인해 가장 큰 목회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 이는 다시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또한 설문에서 통계로 나타났듯이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에 대해서는 목사의 67.5퍼센트, 장로의 68.3퍼센트가 찬성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무언가 개혁의 필요성이나 제도적인 보완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토의, 그리고 재시무 투표의 탈락에서 오는 후유증을 최소화

141) 이상용, "지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간에 상호이해와 협력과 갈등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 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88), 88.

142) <표 14> 참조

143) 행 6:1-4.

144)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정치 권징조례)총회제반 규칙집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3), 31.

145) Ibid., 40.

하는 보완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아무리 목사가 완벽하고 장로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늘 문제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또 목회적 평가는 보는 각도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목사와 장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고 그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제 6 장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을 위한 제언

한국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갈등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목회현장마다 이런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의 꿀을 먹이는 일보다 장로들과의 갈등처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불행하게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본 연구자는 몇 가지의 제안을 통해 목사와 장로의 자세를 가다듬음과 동시에 목사와 장로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사역에 충실하고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제 1 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

이미 살펴본 대로 목사와 장로의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목사에게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독선의식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틈탈 수 있다. 그런가하면 장로들에게는 장로라는 직위를 이용해 교회내의 권력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목사를 조종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목사와 장로 사이에는 주도권 쟁탈전이 야기되고 명확치 못한 역할의 혼동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폭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종'(servant)의 신분을 전제로 한다. 비단 어떤 직분과 연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종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롬 8:16). 그러나 유업을 이을 자녀

이기 이전에 종 된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롬 6:18, 22). 그것도 본래는 죄의 종이였음을 상기해야 한다(롬 6:17).¹⁴⁶⁾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¹⁴⁷⁾

고대 사회의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다. 종은 소유가 없다. 자기 의지도 없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절대 복종(순종), 절대 희생(봉사), 절대 충성(헌신)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조차도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빌 2:7). 사도바울도 자기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모든 서신 첫머리에서 번번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시에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실 된 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¹⁴⁸⁾

따라서 목사와 장로도 철저하게 종의 직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 주관자들은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할지라도 목사와 장로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는 말씀에 따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 2 절 평신도 신학의 입장에서 본 목사와 장로직의 변화

평신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라오스(laos)라는 말과 그 의미가 같다. 이 용어는 단순히 ‘백성’,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속적인 의미로는 헬라 시대의 전 시민을 가리켰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처음에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이스라엘(행 4:10)을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

146) 황의영, 교회의 직임과 리더쉽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96.

147) 눅 17:7-10.

148) 황의영, 교회의 직임과 리더쉽, 99.

엘, 즉 말세교회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행 15:14).¹⁴⁹⁾

그러나 이 용어가 신약에서 어떤 특정한 그룹을 지칭할 때 사용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 항상 포괄적으로 어느 백성 전부를 다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평신도라는 말에는 교역자와 그 나머지 신자들을 갈라놓는 의미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구별하는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교회의 구성원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2세기부터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클레멘스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곳에 평신도, 집사, 장로라는 직책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 때에는 장로와 집사를 성직자로 간주했음이 틀림없다. 이후 평신도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어 중세에는 가르침을 받고 헌금을 내는 의무만 강조되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평신도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그것은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직에 근거한다.

‘평신도’란 용어는 개신교(프로테스탄트)에서 계급으로서의 직책이 아니라 봉사하는 기능적인 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타낼 뿐이다. 1958년 핸드릭 크래머의 평신도 신학이 출판된 뒤부터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가장 큰 제자훈련의 목적이라고 옥한흠은 주장한다.¹⁵⁰⁾

이러한 평신도에 대한 시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는 성직을 특권층 화하는 전통이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특권층으로 여겨지고 점차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여 계급화되고 권력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제는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평신도의 자리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제 3 절 담임목사와 장로의 임기제 정착을 통한 개선

한국 교회 목사와 장로의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목사 장로 임기제’를 제안

149)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39.

150) Ibid., 45-47.

한다. '목사 장로 임기제'란 일정기간을 사역하고 나서 교회의 투표를 받아 다시금 재 시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각 교단의 헌법은 공히 담임목사와 장로가 한번 임직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0세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록 교인들에 의해 장로로 선출이 되든가,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의 발전과 교인들의 화합을 위해 저해가 된다면 이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 88회 총회에 현의된 "담임목사와 장로 임기제 신설 현의 의견"은 임기제도의 실시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¹⁵¹⁾

- (1) 시무여부를 성도들에게 위임함으로써 교회를 민주화한다.
- (2) 교회의 지도력 선택의 권한을 성도들에게 주어 교회 침체를 방지하고 교회 갈등을 치유토록 한다.
- (3) 책임목회를 하도록 한다.
- (4) 평생 장로의 부담을 덜어주며 나태와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교회를 활성화한다.
- (5) 장로의 권위의식보다는 봉사자 의식으로 발전토록 한다.
- (6) 새로운 장로의 선출의 기회를 열어주어 교회를 활성화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현의 안건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임기에 대해 시무기간을 6년으로 하고, 6년이 되면 본인이 재 시무를 원할 때 시무투표를 하여 재 시무를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통합 측의 서울장로교회(이종윤 목사)와 고신 측의 잠실중앙교회(정주채 목사)에서는 목사 장로 임기제와 신임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안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한 임기제 투표를 실시하였다. 서빙고의 은누리 교회(하용조 목사)에서는 장로 4년 시무 후 사역장로로 봉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¹⁵²⁾

물론 어떤 경우에도 제도자체가 만능일수는 없다. 이미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교회의 경우에서 보는 것 같이 임기제는 장로의 기한 윤번제에 따라 매년 후보를 공천하고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현행의 제도에 만족하지 말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목사와 장로의 협

151)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88회 총회 회의 서류 (서울: 한국기독교 장로회 출판사, 2003), 129-130.

152)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188.

력적인 사역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 현재보다 좋은 결과가 오리라 기대한다.

제 4 절 장로의 계속교육 과정개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교육과 자극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온 민족도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특색은,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공동체의 새로운 멤버를 새롭게 하나님과의 계약자로 바르게 교육할 책임이 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¹⁵³⁾

마찬가지로 목사와 장로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본연의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목사는 각종 세미나 및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데 비해 장로는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은 장로의 임직에 대해서 '장로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지교회에서 임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⁴⁾

지교회에서 장로가 받는 교육은 임직 전 노회고시를 위해 6개월 동안 당회의 지도를 받은 것 외에는 없다. 개 교회 형편들이 나름대로의 장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겠지만 장로로서의 기본적인 지식 주입이나 고시 합격을 위한 교육 정도에 머물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단편적인 지식만 습득한 장로들은 임직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장로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들을 선출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주며 그때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장로가 교회발전을 가로막고 교회의 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기에 한국 기독교장로회에서는 장로 재교육을 총회에서 결의한 후에 계속해서 안식년을 맞이한 장로들을 대상으로 총회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5년 차에 이르고 있다.

장로들의 직장생활과 사생활을 고려하여 현재 2박3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강사는 교단 내외의 유명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재교육에 참석한 장로들

153) 정웅섭, 기독교 교육개설 (서울: 대한 기독교교육협회, 1976), 13.

154)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서울: 한국기독교 장로회 출판사), 61.

은 장로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하고 새롭게 장로로서의 사명과 자세를 결심하고 있다.¹⁵⁵⁾

2003년 11월 17-19일까지 대구에서 열렸던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5기 장로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보면 개회예배에 이어 성서연구, 리더십, 재정, 행정, 전도 분야에 대한 다양한 특강들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개회예배(부총회장 김동원 목사), 성서연구로 '성서 속에 나타난 섬김의 지도자'(고신대학원 이성구 박사), 리더십 특강으로 '선교적인 교회지도자의 자세'(한동대병원장 이견오 장로), 재정특강으로 '교회 재정의 운용방안'(전주희년교회 김용 장로), 행정특강으로 '장로교 정치제도의 원리와 실제'(덕수교회 손인웅 목사), 열린 강좌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고도원 방송인), 전도특강으로 '관계중심 생활전도'(기독신학대학원 이상만 목사), 폐회예배(총회장 김옥남 목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로 재교육을 한번 1차 시무가 끝나고 재신임 투표 후 다시 시무를 시작하는 장로의 의무사항으로 제도화한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필요한 지식의 보충은 물론 신앙의 재충전 및 장로로서의 사역의 자세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장로 재교육 제도가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에 정착될 때에 좀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장로로서, 담임목사의 협력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55)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5기 장로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제 7 장

결 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의 대립의 장이요 긴장과 갈등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주도권 쟁탈전, 대우받으려는 자세들이 순수해야 할 교회 공동체를 세상보다 못한 흙탕물로 타락시켜가고 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가장 사랑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용서를 주장하지만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목사와 장로의 그룹이다.

우리는 장로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대의적인 장로정치를 고수하려고 수많은 장로교도들이 로마 교황청의 독재 앞에서 죽어갔던 사실들을 기억한다. 증세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종교개혁과 아울러 성서가 말하는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다 고통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개혁을 외치고 참 성서의 진리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던 개신 교회가 이제 또 하나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의정치 즉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장로교회가 한국에서는 두 가지 극단 속에서 회생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는 목사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독재이다. 일부의 목사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일반 교우들과는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로 여긴다. 여기에 교회 타락의 가장 큰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기준인체 하며 때로는 성경 위에 군림한다. 두 번째는 장로의 또 다른 이름의 독재이다. 교회로 파송 받아 목회 하는 목회자의 팔과 다리를 교묘히 묶어버리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목회자를 조종하려고 한다. 장로들은 다수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답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소신껏 목회 하는 데

종종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목사의 고유한 영역마저 침범하려고 한다.

존 칼빈은 로마 교황 일인에게 집중된 권력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했기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가 진정한 대의정치를 실현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갈 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의해서 교회의 진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의 연구'를 위해 제2장 '장로교의 기원'에서는 장로정치와 성서적 배경과 초대교회로부터 근세까지의 장로정치의 제도적 정착과정을 살펴보았다. 장로는 구약에서 가문이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의 원로이었다. 신약에서는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직분이었지만 후에 가르치는 장로(오늘날의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오늘날의 장로)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발전된 대의정치 형태인 당회가 구성되고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는 가톨릭의 교황제도에 대항한 수많은 개혁자들과 장로교도들의 헌신과 피 흘림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제3장 '장로교의 목사와 장로의 직무'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목사의 직무와 교단의 헌법이 규정하는 목사의 직무, 그리고 칼빈이 이해하는 장로직과 교단의 헌법이 규정한 장로의 직무를 살펴보았다. 목사와 장로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뚜렷한 직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비해 장로는 목사와 교인의 중재자의 자리에서 또 평신도 대표로서 목사의 목회의 돕고 협력하는 조력의 직임을 가지고 있다. 교인들 앞에서 목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목사가 윤리적인 면에서나, 가르침에서 성경을 탈선할 때 이에 대해 적절히 충고하며 권고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제4장 '목사와 장로의 갈등'에서는 한국의 목사와 장로가 경험하는 사역의 갈등을 다루면서 목사직과 장로직의 오해에서 오는 결과, 공통된 갈등의 원인, 그리고 한국문화의 특수성에서 온 갈등을 다루었다. 이어서 외국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분에 대한 성서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에 가장 큰 원

인이 있다. 목사직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목사의 탈선과 장로직을 권력이나 명예직으로 아는 풍조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당연히 목사와 장로는 주도권의 다름을 벌이게 되고 목사는 말씀의 대언을 빙자하여 우회적으로 장로를 비난하고,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견제한다는 미명하에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이는 섬김의 종 된 직분보다는 몇 명만 모여도 서열과 나이를 따지며 누가 어른인가를 저울질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도 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제5장 ‘목사와 장로의 관계 분석’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8회 총회의 총대로 참여한 목사와 장로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수치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정보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훨씬 심각한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순전히 장로와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 옮길 것을 고려해본 목회자가 45.5퍼센트에 이르렀다. 그런가하면 64.8퍼센트의 장로가 목사와 교회 문제로 갈등을 경험해 보았다고 답변한다. 또 장로의 44퍼센트는 목사가 독단적으로 직무를 처리할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목사의 독단적인 일 처리는 장로를 배제하는 것이고 목회의 협력자로서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목사와 장로는 양쪽 다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6장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을 위한 제언’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제도적인 개선을 제언하였다.

이제 한국교회가 목사 장로의 비생산적인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다시금 세계 속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로 성숙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종의 모습을 배우고, 목사 장로의 임기제를 통하여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리라 믿는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 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1-4).

부록 1

“한국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을 위한 연구” 설문지

바쁘신 가운데도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한 본 설문에 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의 대상은 제88회 총회에 참석하신 목사님과 장로님이십니다. 다음의 물음에 적당한 곳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 목사() 2) 장로()

2.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30세 이하() 2) 31-40세() 3) 41-50세() 4) 51-60세 5) 61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국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전문대포함) 5) 대학원졸() 6) 박사()

4. 귀하의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목사는 제외)

1)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2) 공무원 및 사무관리직()
3) 사업 및 자영업() 4)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5) 전업주부() 6) 기타()

5. 귀하가 섬기는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1) 대도시(광역시 이상)() 2) 중소도시()
3) 읍면 소재지() 4) 농어촌, 시골()

6. 귀하가 현재 섬기는 교회의 나이는 (창립 몇 주년)얼마입니까?

1) 5년 이하() 2) 6-10년() 3) 11-20년()
4) 21-30년() 5) 31-50년() 6) 50년 이상()

7. 귀하가 현재 섬기는 교회의 주일 장년 출석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 50명 이하() 2) 50-100명() 3) 100-300명() 4) 300-700명()

5)700-1000명() 6)1000명-2000명() 7)2000명이상

8. 귀하가 최초로 안수(목사)또는 임직(장로)한 이후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1)5년 이하() 2)6-10년() 3)11-20년() 4)21-30년() 5)31년 이상

9.목사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설교 및 설교준비() 2)심방() 3)상담() 4)교육()
5)행정 및 인사관리() 6)기도() 7)대 사회활동()

10.장로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심방() 2)기도() 3)전도() 4)치리() 5)고난당하는 자 위로()
6.목회의 협력자() 7.섬김과 봉사()

11.6년 동안 사역하고 공동의회에서 다시 재신임을 받는 “목사 장로 임기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좋다고 생각한다() 2)반대한다() 3)모르겠다()

‘목사 응답자만’(12-14번)

12. 장로들이 기도와 헌금, 봉사생활, 윤리면에서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3. 장로들과 갈등 때문에 목회지 옮길 것을 고려해 본적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4.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가진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일로 제일 갈등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1)재정문제(예산편성 포함)() 2)인사 행정() 3)선교지원 및 구제()
4)예배 및 설교() 5)목회계획()

‘장로 응답자만’

15. 목사와 교회 문제로 갈등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모르겠다()

16. 목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독단적일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17. 목사의 전체적인 목회와 목회방침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18. 만약 목사에게 불만이 있다면 주로 어떤 점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까?

- 1)설교() 2)심방() 3)기도생활() 4)언행일치() 5)인사행정()
6)재정지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영신교회 이영무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 4동 239-4 영신교회 이영무 목사

전화: 02-833-0653, 0629/ 핸드폰 011-246-0028

*위 설문을 통해서 작성한 논문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조사원에게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필히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부록 2

한국기독교장로회 제5기 장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안)		
네 이름이 무엇이나? - 장로의 정체성과 지도력		
11월 17일(월)	11월 18일(화)	11월 19일(수)
	07:00-08:00 아침 경건회 성서연구(이성구 박사 /고신대학원) 성서 속에 나타난 섬김의 지도력	06:40-08:00 산상 기도회 (팔공산 아침산책)
	08:00-08:50 아침식사	08:00-08:50 아침식사
	09:00-10:30 신앙, 교회, 삶 선교적인 비전과 교회 지도자의 자세(이건오 장로/한동대 병원장)	09:00-10:20 열린강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고도원 선생)
	10:40-12:10 재정특강 교회 재정의 운용 방안 (김용장로/전주희년교회)	10:30-12:30 전도특강 관계중심 생활전도(이 상만 목사/기독신학대 학원대학) 12:30-13:00 폐회예배(김옥남 총회장)
13:30-14:00 등록접수	12:40-13:40 점심식사(기념촬영)	12:40-13:40 점심식사
14:00-14:50 온천욕	14:00-16:00 행정특강 장로교 정치제도의 원리와 실제(손인웅 목사/덕수교회/통합)	선교현장으로!
15:30-16:20 개회예배(김동원 부총회장)		
16:20-16:50 인사와 친교	16:10-18:10 목회자와 장로의 대화(1)	
17:00-18:00 총회주제발제(김원배 교육원장) “네 이름이 무엇이나?”	특강 : 교단의 이해와 장로의 직무(최동익 장로/초동교회) 권역별 교회 사례발표 와 간담회	
18:10-19:20 저녁식사	18:10-19:20 저녁식사	
19:30-21:30 영성강연 영성회복과 내적 치유 (주서택 목사/충북CCC대표)	19:30-21:30 종합토론/찬양의 밤	

부록 3

법제부 헌의안건(2-3)

1. 제목 : 담임목사와 장로 임기제 신설 헌의의 건

2. 헌안부서 : 서울남노회

3. 제안설명 :

1) 헌법에는 담임목사와 장로가 한번 임직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0세 정년까지는

임기가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희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의 갱신을

주도하는 의미로 담임목사와 장로의 임기를 두어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문도록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권한을 이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2) 목사, 장로의 시무기간을 6년으로 하고, 6년이 되면 본인이 제 시무를 원할 때에 시무

투표를 하여 재시무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3) 임기 제도의 이유

(1) 시무여부를 성도들에게 위임함으로써 교회를 민주화한다.

(2) 교회의 지도력 선택의 권한을 성도들에게 주어 교회 침체를 방지하고 교회 갈등을

치유토록 한다.

(3) 책임목회를 하도록 한다.

(4) 평생 장로의 부담을 덜어주며 나태와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교회를 활성화한다.

(5) 장로의 권위 의식보다는 봉사자 의식으로 발전토록 한다.

(6) 새로운 장로의 선출의 기회를 열어주어 교회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4 현의 내용 :

1) 헌법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시무구분과 임기

현 행	개정안
<p>제21조</p> <p>1. 담임목사</p> <p>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그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21 조</p> <p>2. 담임목사</p> <p>1) 담임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p> <p>2)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인이 연임을 원할시에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취임식 없이 시무하나 안식년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연임되지 못하였을 경우 교회를 즉시 사임하며 교회는 1년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p>

2) 헌법정치 제5항 제32조 장로의 선임과 임기

현 행	개정안
<p>제32조</p> <p>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정한다. 미조직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임할 수 있다.</p> <p>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p> <p>장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사임, 해임,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되고 위임받아야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는 1년 이상 교회의무를 이행한 자라야 선임할 수 있다.</p>	<p>제32조</p> <p>1)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정한다.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임할 수 있다.</p> <p>2)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명의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p> <p>3)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인이 연임을 원할시에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취임식 없이 시무한다. 단 연임을 원하지 않거나 연임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무장로 대우에 준한다.</p> <p>4) 사임, 해임,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되고 위임받아야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는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이행한 자라야 선임될 수 있다.</p>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 문화사, 1999.
- 김병원. 목회학,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 김용욱. "목사상에 대한 성서적 이해." 현대와 문학 (1966).
- 김의환. "장로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본다."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43-44.
- 김정복. "목사, 장로의 갈등 그 문제와 해결(1)." 월간목회, 1999년 9월호, 84.
- 김철동. "장로제도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장로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한신대학교 목회학 박사원, 1998.
- 민경배.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_____. 전환기의 선교교육, 서울: 한국기독교 장로회 선교 교육원, 1988.
- 박동섭. 새 목회학, 서울: 성광 문화사, 1981.
- 박병진. 교회의 정치통람, 서울: 성광문화사, 1976.
- 박윤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주석, 정치, 예배모범, 서울: 영음사, 1987.
- 변종길. "화란 개혁교회- 4년 시무 후 자원해서 된다."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91-93.
- 손병호. 장로 교회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 _____. 교회 정치학 원론, 서울: 도서출판 그리인, 1991.
- _____. 목회 경영학 원론, 서울: 도서출판 그리인, 1991.
- _____. 교회 행정학 원론, 서울: 도서출판 그리인, 1994.
- _____. 장로교회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유양계리온, 2000.
- 송현욱. "장로는 협력자이길 원한다." 목회와 신학, 1989년 12월호, 95, 105.
- 오덕교. 장로 교회사,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오성춘. 목회자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두란노, 1993.

- 목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 유광응, "스위스 개혁교회-4년 임기, 재임가능."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93-98.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1, 서울: 신원문화사, 1999.
- 이성희, "장로직의 성경적 본질."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47.
- _____, 미래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_____, 교회 행정학,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9.
- 이요섭, 현대인을 위한 교회 행정, 서울: 하늘기획, 1999.
- 이윤근, 목사 장로 이래도 되는가?,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이주영, 현대 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 이종화, "효과적인 당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 이정석, "장로직의 세속화." 목회와 신학, 2001년 11월호, 55-56.
- 이창승, "장로도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월간 목회, 1991년 1월호, 62.
- 이홍제 외, "세계각국의 장로제도의 운영양태와 장단점을 본다."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78-98.
- 임택진, 장로교회 정치해설, 서울: 기독교문사, 1996.
- _____, 장로학, 서울: 소망사, 2001.
- _____, 장로회 정치해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정응섭, 기독교 교육개설,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76.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출판 주식회사, 1985.
- 지병구,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서울: 새한기획출판부, 1996.
- 최희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목회자." 기독교 사상, 1985년 9월호.
- 한경직 외, 장로시무 핸드북,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
-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999.
- 한국기독교 장로회, 헌법 총회 제반 규칙집,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03.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회 일치를 위하여, 서울: 총회출판사, 1992.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4기 장로지도자과정 핸드북, 서울:

총회교육원, 2002

한미준/한국꺼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타 종교인 비
종교인과의 비교분석-,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허순길. "한국교회 장로직제, 왜 문제가 되는가."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58.

홍치모. "장로직분은 종신직."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88-90.

황의영. 목사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0.

_____. 교회의 직임과 리더쉽,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 번역서적

Baxter, Recharad 참 목자상 (The Reformed Paster),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문제 역, 서울: 세
종문화사, 1981.

Hodge, Aspinwall J. 교회 정치문답 조례 (What is Presbyterian LAW), 김정덕, 박병
진 역, 서울: 은성문화사, 1968.

Hodgson, Peter, 전환기의 교역론 (Revisioing the Church), 박근원 역, 서울: 그리스
도 신학연구소, 1991.

Kreamer, Hendrik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Lefferts, Loestscher A. 세계장로교회사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 김남
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Lingle, Walter L. 세계 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 이야기 (Presbyterians), 이종전 역,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2

Lowry, L. Handolph, & Richard W. Meyer. 갈등해소와 상담, 전해룡 역,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6

Oden, Thomas C. 목회신학 (Pastoral Theology),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Theodore L. Cuyler. How to be a Pastor, New Yo가: The Baker & Taylor Co.,
1890.

3. 외국서적

Cullmann, Oscar, Essays on the Lords Supper, Richmond: John Knox Press, 1972.

Evans, William, How to Prepare Sermons?, Chicago: Moody Press, 1978.

VITA OF
YOUNG MOO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Young Shi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July 21, 1958

Birthplace : Gang Won Do, Korea

Marital Status : Married to Woon Za Park
with two Children, Jyoung Zoo, Bum Zoo

Home Address : 106-901 Sam Sung APT, Shingil 4 Dong, Young Deung Po
Gu, Seoul, Korea

Denomination :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ROK)

Ordained : May 10, 1987

Education

B.A. : Han Shin University, Oh San, Korea, 1984

Th.M. : Han Shin University, Oh San, Korea, 1986

D.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4

Personal Experience:

1/1984 to 12/1984 : Senior Minister
of Mo Dong Presbyterian Church, Hae Nam, Korea

12/1984 to 10/1987 Assistant Pastor
of Sung Am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10/1987 to 3/1990 Senior Pastor
of Youl Ri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3/1990 to 12/1991	Assistant Pastor of Kong Lung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12/1991 to 2/2000	Senior Pastor of Yang Pyung Presbyterian Church, Yang Pyung, Korea
5/2000 to present	Senior Pastor of Young Shi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